

# 이란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와 반유목민의 건축 전통\*

최남섭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조교수

이 연구는 이란 하우라만 지역에서 반유목민들이 산간건축 전통을 이슬람적으로 변안해 만든 지역형 모스크의 기념비적 특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하우라만에 이슬람이 정착한 과정과 모스크가 탄생한 배경을 먼저 살폈고, 이어서 거주민들이 계절과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한 두 가지 지붕형식의 특성을 확인했으며, 그중에 흙지붕 돌집 구조를 확장해서 만든 모스크가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예배실의 목조 기둥과 주두를 장식해 권위를 표출하는 특성을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이곳의 계절별 생활을 살펴서 거주 공동체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동영지에서만 모스크를 사용한 이유도 밝혔으며, 이슬람의 건축 지침과 대규모 공공시설의 기념비 전통을 접목한 지역형 모스크의 건축적 의미도 규명했다.

**주제어** 이란 하우라만 지역, 지역형 모스크, 반유목민의 돌집, 목조 기둥과 주두 장식, 동영지의 기념비 전통, 이슬람의 지역적 변안

## I. 서론

모스크는 이슬람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이다.<sup>1</sup> 예언자 모함마드와 정통 칼리파 시대 이후 거대 제국을 이끌던 무슬림 군주들은 자신의 권위와 지역 정복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 수도와 여러 무역 도시에 모스크를 건립했다. 모함마드의 메디나 주택에서부터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에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세워진 모스크의 시간순 나열이 이슬람 건축사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았던 산간, 사막, 초원, 바다 등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도 이슬람은 전해졌고, 그곳의

\*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RS-2023-00244493)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도움으로 수행했다.

<sup>1</sup> 모스크는 알라의 초월적인 계시를 기념하고 공유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과 구별되는 크기, 재료, 구조, 장식 등으로 만드는 기념비로서 이슬람권에서 가장 권위적인 건축이다.

사람들도 각기 처한 환경과 건축 전통에 맞추어 모스크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모스크들이 나타내는 지역적 변용은 단선적인 건축사를 넘어 이슬람 건축의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시대를 선도하지 않고 조악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런 모스크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지역형 모스크의 특성과 가치를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우라만(Hawrāmān)이라는 산간지대의 모스크를 다룬다. 이곳은 하우람어(Hawrāmī)라는 쿠르드어의 한 방언을 사용하는 하우람인들의 집중 거주지로서, 이란의 코르데스탄주와 케르만샤주를 중심으로 서쪽의 이라크 할라브자 일대까지 분포하는 산간이다. 이곳은 비틀리시(Bitlisi, 1543~1603/4 CE)<sup>2</sup>가 저술한 쿠르드인의 첫 번째 역사서 『샤라프나메(Sharaf-nāme)』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고, 20세기까지 다른 외부인의 기록에도 두드러지지 않았을 만큼 고립된 지역이었다. 2021년에 ‘하우라만의 문화경관(The Cultural Landscape of Hawraman/Uramnat)’이 쿠르디스탄에서 유일하게 쿠르드인의 전통 생활과 문화를 보존하는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목축과 농사를 병행하며 계절마다 다른 거주지에 살았던 하우람인들은 초기부터 이슬람의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 수니 무슬림이 되었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모스크도 만들었다. 비록 이곳의 모스크가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거주민들에게는 반유목민의 건축 전통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이자 무슬림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념비였다.

이런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를 다룬 연구가 앞서도 있었다. 접경지역의 제한적인 조사 여건 때문에 성과가 많지는 않았다. 그중에 자레이(M. E. Zarei)의 쿠르디스탄 형식(Kurdistan Style) 정의는 가장 선도적이었다(Zarei, 2007; 2013a; 2013b; 2014). 하지만 주로 사난다즈(Sanandaj), 데흐골란(Dehgōlān), 사케즈(Saqqez), 케르만샤(Kermāshāh) 등의 도시 모스크에 집중한 그의 연구는 하우라만의 모스크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후 ‘하우라만의 문화경관본부(Pāyegāh-e Manzare-ye Farhangī-ye

<sup>2</sup> 본명은 Sharaf al-Din Khān ibn Shams al-Din ibn Sharaf Beg Bitlisi(혹은, Bedlisi)이다. 현재 이란 아라크(Arak) 인근의 가름루드(Garmrūd)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사파비조의 타흐마스프 1세와 함께 카즈빈(Qazvin) 궁정에서 교육받았으며, 가장 이른 시기에 쿠르드인의 역사를 저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최남섭, 2024: 198).

Hawrāmān)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남아있는 모스크 목록 일부도 작성했지만(Sadeqirād et al., 2018: 1234-1235), 이란의 문화관광부(MCTH)가 수립한 마을 경관의 토착적 측면을 강조한 등재 전략 때문에 모스크의 특성을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았다(Farhanigī, 2007: 3). 최근 아바디(H. 'Abādī) 등이 『하우라만의 지역 건축 소개(Dar Āmadī bar Me'mārī-ye Būmī-ye Hawrāmān)』에서 두 모스크의 특성을 설명하고('Abādī et al., 2023: 139-142), 탈레브니야(P. Tālebniyā)와 동료 연구자들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만한 열 개의 모스크 현황도 발표했다지만(Tālebniyā et al., 2024: 1-15), 그들의 소략한 소개가 면밀한 탐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렇듯 지금까지 이곳의 지역형 모스크를 역사적 배경과 지역 건축의 전통을 고려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 이란에서는 모스크건설지원협회(Majmū'e-ye Khaiyerin-e Masjedsāz)라는 친정부단체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모스크 건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철골,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만든 새로운 모스크(Masjed-e Jadīd)가 전국적으로 난립했고, 하우라만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모스크들이 훼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며 옛 모스크(Masjed-e Qadīmī)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하우라만에서 옛 모스크라고 여겨지는 14개의 모스크와 훼손 이후에 버려진 부재들을 가지고 이곳의 지역형 모스크들이 반유목민의 건축 전통과 이슬람 교리를 접목해서 만들어낸 기념비성의 성격과 지역적 변용이 나타내는 의미를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단선적인 건축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형 모스크를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발행한 지역 사료<sup>3</sup>와 조사 보고서를 참조했으며, 2015년

<sup>3</sup> 18~20세기에 하우라만과 인근 지역을 관할한 전근대 쿠르드 지배가문에서 남긴 기록을 참조했다. 그중에 셰이다 마르두히(Qāzi 'Abdallah Shāda Marukhī, 19세기 활동)와 하우라미(Mozafar Bahman Hawrāmī, ?~1941 CE)의 기록은 이곳을 직접 통치한 바우남 가문(Khāndān-e Baūnām)의 군주에 대해 다루고 있어 가장 중요했다. 하우라만 지역에서 지배권을 구축한 아르달란 가문(Khāndān-e Ardalān)의 샤리프 카지(Sharif Qāzi, 1739~? CE), 호스로우(Khosrow, 생물미상), 마스투레 아르달란(Mastūre Ardalān, 1805~1848 CE), 사난다지(Sanandajī, 1858~1921 CE), 마르두흐(Mardūkh, 1877~1975 CE)처럼 '아르달란의 역사가들(Mürkhān-e Ardalān)'의 문헌도 참조했다. 이외에도 이라크 술라이마니아에 근거지를 두고 아르달란과 경쟁했던 바반 가문(Khānadān-e Bābān)

초부터 현장조사하면서 수집한 문헌, 촬영한 사진, 직접 작성한 도면 자료도 활용했다. 이를 가지고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가 탄생한 배경을 먼저 살폈다. 여기서는 산간의 고립된 환경에서 공존하던 다양한 부족들이 압둘라 이븐 오마르의 정복 활동으로 이슬람을 처음 접한 상황과 이후 이슬람 세력의 지원을 받아 통치권을 획득한 바우남 가문의 군주들이 모스크를 건립한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서 이곳의 모스크가 돌집 구조를 활용해 종교시설의 권위를 표현하는 방식도 살폈다. 이를 위해 반유목 하우람인들이 사용하는 주거용 돌집을 지붕형식으로 나누어 각 특성을 분석하고 이곳의 모스크가 흙지붕 돌집의 규모를 확장한 뒤에 두꺼운 벽체와 목조 부재를 활용해 기념비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하우람인들이 동영지의 기념비 건축 전통을 변안해 만든 공동체적 모스크의 의미를 고찰했다. 이를 위해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반유목민의 생활방식을 살펴서 하우람인들이 동영지에서만 모스크를 사용한 이유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주민들이 이슬람의 건축 지침과 이를 충족하는 동영지의 기념비 전통을 접목해 만든 모스크의 건축적 의미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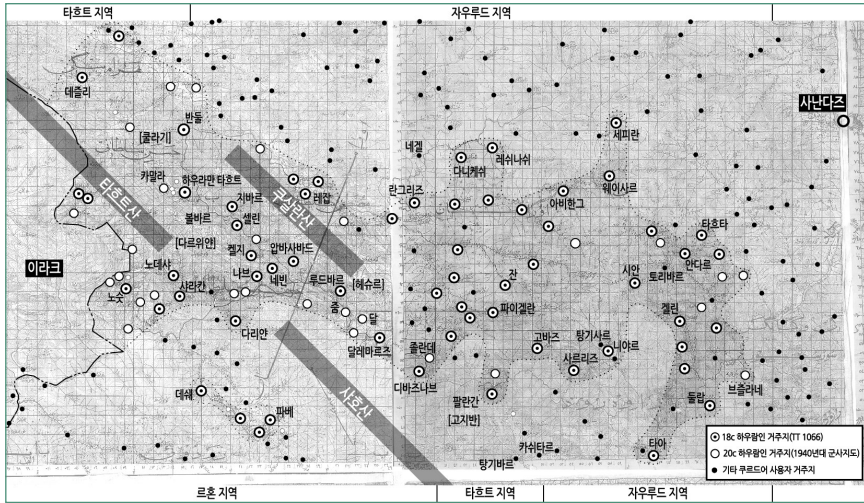
## II. 하우라만의 이슬람 정착과 지역형 모스크의 탄생

### 1. 산간의 다양한 부족 공존과 단일한 종교의 부재

하우라만은 해발고도 3,500m를 넘나드는 타흐트산(Kūh-e Takht),<sup>4</sup> 쿠살란산(Kūhhā-ye Kūsallān), 샤흐산(Kūhhā-ye Shahō)이 모여있는 ‘타흐트(Takht)’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사난다즈(Sanandaj) 인근까지 이르는 ‘자우루드(Zhāūrūd)’ 지역과 서쪽으로 노숫(Nōsūd)과 파베(Pāve)를 넘어 이라크의 할랍자(Halabja)까지 분포하는 ‘르혼(Lehōn)’ 지역으로 구성된다(그림 1). 하우라만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분명치 않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설적인 메디아의 다리우스 대왕(Darius the Medes)

의 바바니(‘Abdālqādrī bn Rostam Bābānī, 19세기 활동)가 남긴 기록도 활용했다.

<sup>4</sup> 하우라만산(Kūh-e Hawrāmān)이라고도 부른다.



출처: Dāyere-ye Joqhrāfīā-ye Setād-e Artesh, 1943.; ?.; 1946/7.; 1943/4. 편집.

그림 1 하우라마의 지역 분포와 주요 대상지

이 추방한 형제 아오람(Aoram)과 칸둘(Kandule)<sup>5</sup> 중에 아오람의 정착지라고 생각한다(Soane, 1912: 377).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Alexander the Great)이 만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배고픔에 울부짖던 아우성 소리(aura~ aura~)에서 유래했다고도 추측하며, 구름(Haūr), 태양(Hūr), 임시거처(Hawār)처럼 높은 지역을 가리키는 하우람어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Tāheri, 2006: 11). 조로아스터교의 『아베스터(Avesta)』에 나오는 ‘신(Hūrā)’과 ‘오다(Āman)’라는 단어를 합쳐 ‘아후라마즈다가 내려온 지역’, 곧 ‘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oltāni, 2001: 22). 이렇게 근거 없이 계속해서 추정할 수 있다면, ‘표범들(Palangān)’, ‘사냥용 치타(Yōzidar)’, ‘악마의 마을(Divdez)’처럼 자기 세력을 과시하거나 경쟁집단을 비하하는 이곳의 지명 사용 경향을 고려해 ‘강도’를 뜻하는 ‘하라미(Harāmi)의 땅’이라는 의견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우람인들은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았다. 이곳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고려

<sup>5</sup> 이란 케르만샤에는 칸둘레(Kandule)라는 마을이 있다. 케르만샤 거주민들은 보통 칼호르(Kalhor)라는 쿠르드 방언을 사용하는데, 특히하게도 칸둘레에서는 하우람어를 사용한다.

하면 그들에게는 기록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기원전 8세기에 사호산 동측의 탕기바르(Tangivar)에서는 카랄라의 사람들(People of Karalla)이 신아시아의 사르곤 2세(Sargon II, 722~705 BCE 재임)의 군대에 대항해 두 차례나 전투를 치렀지만 결국 패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Frame, 1999: 31-57). 1393년 7월에는 투르크멘인들이 아미르 티무르(Amir Tīmūr Gūrkāni, 1370~1045 CE 재임)의 군대를 피해 좁고 긴 협곡이 있는 타흐트지역에 몸을 숨겼으나 3일 동안의 전투 끝에 괴멸했다(Yazdi, 2008/9: 508-509). 16세기 말 쿠르디스탄 전역에서 오스만조와 사파비조가 국경 쟁탈전을 벌이던 시기에 아르달란 가문의 할로 한(Halo Khān of Ardalān, 1590~1616 CE 재임)은 자치권 유지를 위해 팔란간(Palangān)을 최후의 피난지로 구상했으며(최남섭, 2024: 217), 1925~1931년에는 노숫에서 바우남 가문의 자파르 술탄(Ja'far Soltān of Baūnam)이 팔레비 정부에 저항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Hawrāmī, 2007: 642-643). 지금도 이곳에서는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이탈한 반정부 쿠르드인들이 숨어서 반란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최남섭·전봉희, 2021: 121-132), 붓집꾼들(Kūlbarhā)이 이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이라크에서 밀수품을 운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하우라만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험준한 환경에 의지해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거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하우라만에서는 다양한 기원을 가진 부족들이 한 마을에 공존하게 되었다. 이곳의 지명이 유래한 하우라만 타흐트(Hawrāmān Takht)에는 현재 36개 이상의 부족이 함께 생활한다. 하우라미(Mozafar Bahman Soltāni Hawrāmī)에 따르면, 이곳의 거주민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기부터 아르달란 가문의 한 아흐마드 한(Khān Aḥmad Khān of Ardalān, 1616~1636 CE 재임)이 활동한 시기에 외부지역에서 들어왔다. 그들의 출신지는 인근의 로레스탄(Lorestān)이나 하마단(Hamadān)에서부터 타브리즈(Tabriz), 타롬(Tārom),<sup>6</sup> 할한(Khalkhān),<sup>7</sup> 수로바쉬(Sūrobash),<sup>8</sup> 시

<sup>6</sup> 이란 잔잔주에 있는 도시다.

<sup>7</sup> 아프가니스탄 바다산주에 있는 마을이다.

<sup>8</sup> 이란 호르모즈간주에 있는 인구 5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

표 1 하우라만 타흐트의 주요 부족

부족명	출신지/첫 인물/이주시기/기타	부족명	출신지/첫 인물/이주시기/기타
Shāna	??/??/?	Sheikh Hājīān	??/하지/한 아흐마드 한의 활동기/?
Sūrbāshān	수로바쉬/?/압바스 콜리 술탄 재임기/?	Chane Qūl	??/??/의복을 만드는 재단사 집단
Dāūd Khāllān	타롬, 할한/다우드/?/피난민	Ghājīān	??/??/성전(Jihād)을 의미하는 하우람어 부족명
al-Khāṣān	테즈폴/?/압바스 콜리 술탄 재임기/하인	Kākran	로레스탄/?/?/카카완드(Kākwand) 부족 출신
Mūslān	??/무사/?/?	Aminīān	??/압바스 콜리 술탄 재임기/호위병의 후손
Bādrūwān	??/??/부족원에게 민첩성이 유전	Qelān	에티오피아/?/?/흑인
Handiyān	인도/?/?/부족원들이 의사로 활동	Sārmān	시르만드/?/?/?
Shīrān	??/??/?	Āli Pāshāyān	??/알리 파샤/?/?
Ghanīyān	??/피르 살리야르 활동기/고수, 가수로 유명	Walawān	??/??/지역 군주의 후손(Walīzāde)
Kamālān	이스파한/모함마드 카말/?/?	Khūb Yārān	??/압바스 콜리 술탄 재임기/창고지기 후손
Hājjiyārān	로레스탄/하지야르/압바스 콜리 재임기/군대	Shāmīān	다마스쿠스/?/?/?
Shānedarān	??/샤라바드란/알렉산더 대왕 활동기/?	Tabriziyān	타브리즈/?/?/피난민
Rahmārān	??/??/?	Bāhūwān	하마단/사이드 모함마드 다르위시/?/?
‘Othmān	??/??/?	Harkelān	??/??/?
Qomrān	??/??/?	Hamsarānān	??/??/?
Hūrshāhān	??/??/왕손(Shahzāde)	Jārchiān	??/??/?
Shākermān	??/??/?	Mardūkhiyān	??/다르위시 피르 모함마드(바바 마르두흐)/??
Farānān	??/??/?	Baūnamān(*)	??/바흐루의 아들 바흐만/?/지배가문으로 성장

출처: Hawrāmī, 2007: 361-363. 참조.

르만드(Sirmand),<sup>9</sup> 데즈풀(Dezfül)<sup>10</sup>처럼 이란 전역에 분포하며, 인도나 시리아를 넘어 에티오피아(Habash)처럼 더 먼 지역도 있었다(표 1). 여기에 타헤리(Moštāfā Ṭāherī)가 조사한 아랍 출신의 사르마(Ṣarmā)나 자크리얀(Zakriyān) 마을의 비질라(Bijīla), 이라크 후르말(Khurmāl)에서 온 호스로우 아카(Khosrow Akhā) 부족을 더하면 거주민 구성은 더 다양해진다(Ṭāherī, 2006: 12-13). 이러한 다부족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팔란간의 누르 앓 딘(Nūr al-Dīn), 라마잔(Ramezān), 몰란(Möllān), 무리웨이시(Muriweisi), 아지즈(‘Aziz), 아한가르(Anhangar), 우사야(Ūsāyā), 자만(Jamān), 잠시드(Jamshīd), 조흐랍(Zohrāb) 부족에서도 확인된다(최남섭, 2019: 161). 이 외에도 하우라만에서 하나의 부족만이 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계속된 외부인구의 유입 때문에 1724~1729년 사이에 오스만조가 작성한 세금대장(Tapu Tehrīr Defteri, TT 1066)<sup>11</sup>에서 하천(Nahr)과 농경지(Mazra‘e) 주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Ro‘āyā)의 이름 없는 거주지와 유목집단(Jamā‘at)의 동영지(Qeshlāq)가 20세기에 이르러 독립된 마을(Qarīe)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최남섭·전봉희, 2021: 123). 이렇게 외부인들이 들어와 하우람인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우라만 타흐트와 인근 지역의 거주 밀도는 점차 높아졌고,<sup>12</sup> 언젠가부터 하우람어 사용자들은 타흐트 지역을 넘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동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우루드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란그리즈(Langrīz), 다니케쉬(Dānikesh), 웨이사르(Wēisar), 세피란(Se Pīrān), 안다르(Andar), 시안(Shiān) 등지에서 하우람어와 다른 쿠르드어 사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상황은 그들의 점진적 확산을 나타낸다(그림 1). 이와 같이 외부인의 유입과 정착이 반복되던 하우라만에서

<sup>9</sup> 이란 호르모즈간주에 있는 마을이다.

<sup>10</sup> 이란 후제스탄주에 있는 도시다.

<sup>11</sup> 1722년 아프간조가 사파비조의 수도 이스파한을 점령한 시기에 오스만조가 작성한 세금대장이다. 319장의 대장에는 Līvā, Nāhie, Qasabe, Qarīe, Qeshlāq, Jamā‘at로 구분된 지역명, 납세의무를 가진 성인 남성 목록, 지역 특산품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山口昭彦, 2000: 213-214)

<sup>12</sup> 이처럼 하우람인들은 단일한 조상을 공유하는 혈족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전란, 범죄, 종교 탄압 등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소수 가구나 소규모 부족 단위로 이주한 뒤에 가까운 지역에서 생활하며 서로 동화되고 결국에는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 거주환경 공동체다(최남섭·전봉희, 2021: 123).

는 일찍부터 통합된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못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족들이 일시에 같은 신을 숭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 2. 압둘라의 파베 정복과 초기 이슬람의 간접적 영향

이슬람 시대 이전까지 하우라만에는 조로아스터교도, 기독교도, 우상숭배자가 섞여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하늘, 별, 달, 불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불과 빛을 아후라마즈다의 상징으로 여기는 조로아스터교도였다(Mardūk, 2016: 56). 이를 나타내는 단서가 르혼의 파베 남측에 있는 아테쉬카데산(Kūh-e Āteshkade)이다. ‘불의 사원이 있는 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곳의 지명은 사산조 말기에 유래했다. 당시는 카디시야 전투(Battle of al-Qadisiyyah)에서 패하고 크테시폰(Tisfūn)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사산조의 마지막 왕 야즈데게르드 3세(Yazdegerd III, 632~651 CE 재임)가 아랍군을 저지하기 위해 바우(Bāu ibn Shāpūr ibn Keiūs ibn Qobād Shahriyār, ?~651 CE)라는 장수를 샤희리주르(Shahrizur)<sup>13</sup>에 파견한 시기였다. 이곳에 도착한 바우는 여러 산 위에 성채를 건설하고 동쪽으로 더 나아가 시르완강<sup>14</sup> 주변에 천막을 치고 주둔했다. 당시 그는 거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지 병력 확충과 조로아스터교 전파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러던 중에 바우는 파와(Pāwa)<sup>15</sup>라는 이름을 주둔지에 붙이고 아테쉬카데산 위에 불의 사원도 건립했다고 전한다(Bābāni, 2013: 37-41).

이렇게 사산조 말기에 이르러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직접 받기 시작한 파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랍군에 정복되며 이슬람권에 속하게 되었다. 두 번째 칼리파 오마르(Omar ibn al-Khaṭāb, 586~644 CE)의 차남 압둘라 이븐 오마르(ʿAbd Allāh ibn ʿOmar, 610~693 CE)가 그 주역이었다. 639년에 칼리파 오마르는 이맘 하산(Emām Ḥassān ibn ʿAlī Moṭeẓā)과 압드 알 모ṭāb(ʿAbd al-Moṭāb)에게 야즈데게르드 3세의 추격을 명하고, 아들 압둘라와 안사리(ʿAbū ʿAbīde Aansārī)에게는 샤희리주르

<sup>13</sup> 현재 이라크 슬라이마니야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다.

<sup>14</sup> 하우라만에서부터 바그다드 일대까지 흐르는 강이다.

<sup>15</sup> 현지에서는 ‘파와(Pāwa)’라고 부른다.



출처: Zarei, 2010: Fig. 6.; Şadeqirād et. al., 2018: Fig. 3-673.; Fig. 3-674.

그림 2 무체쉬 모스크의 초석(좌), 네겔의 『코란』(중), 셸린의 『코란』(우)

정복을 지시했다. 이에 압둘라 일행은 샤흐리주르의 성채에서 거세게 저항하던 거주민들을 사냥하듯이 제압하고 통치권을 탈취했다. 이렇게 승전을 거듭하던 그는 동쪽의 파베로 나아가 목숨을 담보로 거주민들에게 이슬람 개종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주민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압둘라는 수일 동안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학살을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주민들은 압둘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Bābāni, 2013: 39-40).

이때가 하우라만 지역이 이슬람을 최초로 접한 순간이었고, 최초의 모스크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압둘라 이븐 오마르는 정복 과정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모스크와 민바르를 세워 모함마드의 교리를 전했다. 당시 그는 아테쉬카 데산에 있던 불의 사원을 파괴하고 나서 그 자리에 거대한 모스크를 건립했으며, 그 안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압둘라(‘Abd Allāh)’라는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이후 압둘라는 사산조의 마지막 왕을 추격하던 아랍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파베를 떠나면서 모아즈 이븐 조발(Mo'adh ibn Jobal. 603-639 CE)<sup>16</sup>의 후손을 남겼는데, 그가 거주민과 혼인해 낳은 후손들이 이곳의 이슬람 정착에 크게 공헌했다고 전한다(Bābāni, 2013: 39-40). 하지만 곧바로 그 여파가 하우라만의 다른 지역에 닿진 않았던 것 같다. 타흐트와 자우루드 지역에서 당시의 유구나 유물이 확

<sup>16</sup> 메디나의 하즈라즈 부족(Banū Khazraj) 출신이며, 예언자 모함마드를 따르던 사하바(Ṣaḥāba) 중에 한 명으로서 『코란』 편찬에도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인되지 않는다. 가장 이른 시기의 흔적은 하우라만을 벗어나 동쪽에 떨어져 있는 무체쉬(Müchesh)<sup>17</sup> 마을의 모스크 초석에 새겨진 “897년(284 AH)에 술탄 알 아지즈(Solṭān al-‘Azīz)”라는 짧은 글귀에서 확인된다(그림 2). 하우라만 내에서는 11세기경에 편찬됐다고 알려진 네겔(Negel)의 『코란』(Mardūkh, 2016: 279)과 티무르조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셀린(Selīn)의 『코란』(Ṣadeqīrād et. al., 2018: 1237-1238)이 가장 이른 이슬람의 흔적이다. 이와 같이 초기 이슬람이 하우라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까닭은 당시 아랍군에게 산속 이교도의 개종보다 패망한 사산조의 주요 도시 정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 3. 바우남 가문의 이슬람 추구하고 모스크 건립 추진

하우라만의 이슬람 정착은 이곳에서 성장한 바우남 가문(Khāndān-e Baūnām)의 세력 확장과 밀접해 보인다. 이 가문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아르달란 가문(Khāndān-e Ardalān)은 16세기부터 침예해진 오스만조와 사파비조의 대립 상황에서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미리반의 산간성채를 중심으로 자치권을 유지할 만큼 더 강력한 세력을 보유하고 명성도 자자했다(최남섭, 2024: 215-216). 하지만 1636년에 솔레이만 한(Soleimān Khān, 1636~1655 CE 재임)은 사파비조의 사피 1세(Shāh Ṣafī, 1629~1642 CE 재임)에게 복속하고 ‘스네(Sene)’<sup>18</sup>라는 평탄한 분지의 사난다즈로 천도하며, 아르달란 군주들은 하우라만을 떠났다(Sharif Qāzī, 2000: 28; Khosrow, 1977: 31; Mastūre, 2013: 35; Mastūre, 2019: 125; Sanandajī, 1987: 122; Mardūkh, 2016: 304). 이와 다르게 바우남 가문은 상대적으로 세력도 작았고 아르달란 가문의 간섭도 받았지만, 통치권을 확보한 이후부터 20세기 초에 해체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배력을 발휘하며 이슬람 정착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었다.

이 가문의 첫 번째 인물은 바흘루(Bahlū)의 아들 바흐만(Bahman, ?~1055 CE)이다. 현지에서 그를 ‘바우남’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가문명이 유래했다. 바흐만은

<sup>17</sup> 현재 카마란시에 속하고, 케르만샤와 사난다즈를 연결하는 도로의 동측에 있다.

<sup>18</sup> 사난다즈는 언덕명 ‘Sine, Senne, Sne’와 성채를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Dezh’가 합쳐진 지명이다. 스네 언덕의 성채를 뜻한다(Sanandajī, 1987: 122; Kordestāni, 2001: 30; Mardūkh, 2016: 304)

세 살 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40~50가구의 양과 염소를 돌보며 생활했다. 어느 날 가우클루(Gāuklū)<sup>19</sup>라는 초지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 귀가하던 그는 한 동굴에서 만난 잘랄 앓 딘 가지(Jalāl al-Dīn Ghāzī)<sup>20</sup>라는 셰이흐(Sheikh)의 청으로 새의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이 셰이흐는 새 요리를 대가로 요구했다. 바흐만은 집에 가서 모친이 요리한 새 구이와 얇은 빵(Nān)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후 셰이흐는 그에게 디바즈나브(Dīvaznāv)의 수장이 습격할 거라는 정보를 알려주며 사람들을 피신시키라고 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디바즈나브의 사람들이 악마들(Dīwān)처럼 공격해왔고 피신하지 않은 거주민들을 학살했다. 이후 셰이흐는 생존자들을 모아놓고 바흐만과 그의 후손들을 지도자(Kedkhodā)로 받들고, 매년 쉼, 달걀, 장작, 수확물 등을 바치라고 명했다(Soltāni, 2001: 29-30; Sheidā Mardūkhī, 2004: 113-116; Hawrāmī, 2007: 383-384). 이와 같이 잘랄 앓 딘 가지의 도움으로 통치권을 확보한 바흐만과 가문의 후대 군주들은 이슬람을 통치 기조로 삼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관할지에 모스크를 세워 관리하려는 태도를 나타냈다.

바흐만은 55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어서 즉위한 장남 바리야 베이그(Bāriya Beig, 1055~1108 CE 재임)는 성채, 관청, 타워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디바즈나브 수장의 딸과 혼인해 세력의 기반을 다졌다. 그는 하우라만 타흐트와 디바즈나브의 중간지점에 네빈(Nevīn)<sup>21</sup>이라는 마을을 조성해 아내에게 선물하며 두 세력의 경계도 명확히 했다(Soltāni, 2001: 30; Sheidā Mardūkhī, 2004: 118; Hawrāmī, 2007: 385). 이후 바리야는 셀린(Selīn), 볼바르(Bolbar), 다르위안(Darwiyān) 등으로 세력을 넓혀나갔고, 이 과정에서 네빈 근처에 있는 압바사바드(‘Abbasābād)의 카카이(Kakāi), 아흘레학(Ahl-e Haqq), 야르사니(Yārsāni)<sup>22</sup>

19 하우라만 타흐트가 위치한 쿠살란산에 있는 동굴이다.

20 바흐만이 처음 발견한 인물이어서 처음에는 카지 바흐만(Qāzī Bahman)이라 불렀는데, 점차 이를 줄여 부르면서 카지븐(Qāzī bn)이 되었다. 하우라미는 그가 열두 이맘 중에 다섯 번째 이맘 모함마드 바케르(Moḥammad Bāqer, 676~732)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Hawrāmī, 2007: 384). 셰이다 마르두히는 출신 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그의 무덤이 이라크 카라다그의 공동묘지에 있다고 말했다(Sheidā Mardūkhī, 2004: 114).

21 현지에서는 ‘누윈(Nūwīn)’이라고 부른다.

22 ‘야리의 신(Din-e Yārī)’을 믿는 사람들을 뜻한다. 하우라만의 술탄 에스학(Soltān Eshāk)이라는 곳에 12~13세기경 활동한 술탄 에스학의 무덤이 남아있으며 지금도 소수의 추종자들이 야르산

등으로 불리는 이교도들도 몰아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느 금요일에 셀린 사람들을 보내어 예배하러 성채 바깥으로 나온 그들을 모두 살해하고 네빈 사람들을 이주시킨 뒤에 모스크를 건설했다(Soltāni, 2001: 30, Sheidā Mardūkhī, 2004: 117-118; Hawrāmī, 2007: 385). ‘잠잠의 밤(Shab-e Jamjam)’<sup>23</sup>이라고 부르는 당시 사건은 바리야가 모함마드와 『코란』 외에 다른 예언자와 경전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제거하고 이슬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기조를 계승한 하우남 군주들은 부흥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아미르 지아샤(Amīr Jīāshā)’라는 별칭을 가진 아미르 사이드(Amīr Sa’id, 1383/4~1469 CE 재임)가 첫 번째 부흥기를 이끌었다(Soltāni, 2001: 31, Sheidā Mardūkhī, 2004: 120-125; Hawrāmī, 2007: 386-387). 그의 재임기에는 ‘99명의 피르(Navad va Noh Pīr)’<sup>24</sup>라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활동했는데, 그중에 ‘피르들 중에 피르(Pīr-e Pīrān)’라고 알려진 피르 샨리야르(Pīr Shāliyār)<sup>25</sup>처럼 대외적으로 명망 높은 인물도 있었다.<sup>26</sup> 당시 그들의 가르침이 ‘피르들의 지혜(Mo’arefat-e Pīrān)’라는 관용구가 되었을 만큼 영향력이 막대했으며(Sheidā Mardūkhī, 2004: 85), 이를 반영하듯 하우라만 타흐트의 아미르 지아샤 모스크(Masjed-e Amīr Jīāshā)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모스크들이 세워졌다고 전한다. 두 번째 부흥기는 그의 증손자 압바스콜리술탄(‘Abbāsqōli Soltān, 1624~1665 CE 재임)의 재임기였다. 그는 술탄(Soltān)<sup>27</sup> 칭호를

교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sup>23</sup> 이 관용구는 야르산교의 예배공간을 가리키는 ‘모임 집(Jam’ Khāne)’이나, 사건이 발생한 ‘금요일(Jom’e)’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sup>24</sup> 셰이다 마르두히와 하우라미가 언급한 피르는 모두 36명이다. 여기서 ‘99명’은 특정 인원수가 아니라 ‘많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인다.

<sup>25</sup> 본명은 바바 모스타파(Bābā Moṣṭafā)이며, 그의 부친은 피르 모함마드 게이비(Pīr Moḥammad Gheibī)이다. 생몰연대가 불분명하지만 아미르 사이드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Hawrāmī, 2007: 365-367).

<sup>26</sup> 그의 명성은 대외적으로도 자자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전한다. 그 중에는 ‘왕 중의 왕, 샤 압바스(Shāhanshāh Shāh ‘Abbās)’의 딸 샨바라 하툰(Shābāra Khātūn)도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피르 샨리야르의 집 근처에 와서 병을 고칠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피르 샨리야르와 혼인하고 하우라만 타흐트에 정착해 살았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전한다(Sheidā Mardūkhī, 2004: 90-93; Hawrāmī, 2007: 367). ‘피르 샨리야르의 결혼식(Arūsī-ye Pīr Shāliyār)’은 둘의 결혼을 기념하는 행사다.

<sup>27</sup> 현지에서는 ‘산(Sān)’이라고 부른다. 사파비조에서 오스만 술탄을 격하하기 위해 베이그(Beig)

받을 만큼 샤 압바스 1세(Shāh 'Abbās I, 1588~1629 CE 재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Soltāni, 2001: 35). 그가 겨울에 압바사바드, 여름에 크라위돌(Krāwidōl)<sup>28</sup>과 피르로스탐(Pīr Rostam),<sup>29</sup> 가을에 네빈과 하우라만 타흐트를 돌며 정기적으로 지배권을 확인하고, 하우라만 타흐트, 볼바르, 셸린, 압바사바드 등지에 모스크, 저택, 관공서 등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파비조의 일시적 호황기를 공유했기 때문이다(Sheidā Mardūkhī, 2004: 143). 그의 증손자 레자 술탄(Rezā Soltān, 1756~1782 CE 재임)은 마지막 부흥기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의 재임기는 아프샤르조의 나데르 샤(Nāder Shāh Afshār, 1736~1747 CE 재임)가 사망한 뒤에 잔드조의 카림 한(Karīm Khān Zand, 1751~1779 CE 재임)과 아프간조의 아자드 한(Āzād Khān Afghān, 1750~1758 CE 재임)이 각축을 벌이던 혼란기였다. 하지만 당시 두 세력이 미처 관심을 두지 못한 하우라만에는 안정기가 찾아왔고, 이 시기에 그는 오래된 모스크, 저택, 다리, 정원, 농작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Sheidā Mardūkhī, 2004: 193), 모든 마을에 관공서와 모스크를 세울 수 있었다(Soltāni, 2001: 40). 이처럼 바우남의 군주들은 가문의 시작부터 줄곧 이슬람을 추구했고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각지에 모스크를 세워 통치권을 공고히 했다. 이 가문의 군주들이 하우라만의 모든 모스크를 세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하우라만이라는 산간지역에 이슬람이 정착하는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III. 지역형 모스크의 돌집 구조 확장과 권위 표출

#### 1. 하우람인의 거주지 인식과 돌집의 지붕형식 선택

하우람인들은 계절별로 특성이 다른 돌집을 사용했다. 이런 돌집 구조를 사

대신에 사용한 솔탄(Soltān) 칭호는 압바스콜리 술탄 이후 바우남 군주들이 페르시아계 왕조로부터 통치권을 공인받을 때마다 사용되었다. 반대로 오스만조에서는 사파비조의 파드샤(Pādshāh)를 낮추기 위해 지역 군주에게 파샤(Pāshā)라는 칭호를 내렸다(Soltāni, 2001: 35).

<sup>28</sup> 네빈 마을 위쪽에 있는 여름 거주지다.

<sup>29</sup> 하우라만 타흐트 인근에 있는 여름 거주지다.

용하는 지역형 모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우람인들의 계절 구분, 거주지 성격, 돌집 형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4월과 9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 해를 겨울과 여름으로 구분하고, 페르시아어로 ‘마을’을 뜻하는 ‘데(De)’와 하우람어로 ‘임시거처’를 의미하는 ‘하와르(Hawār)’<sup>30</sup>에서 각각 겨울과 여름을 보냈다. 그들의 데와 하와르는 ‘겨울(Kiṣ)’과 ‘여름(Yaz)’을 뜻하는 투르크어 ‘케실락(Qeshilāq)’과 ‘야일락(Yailāq)’이나 ‘하와르짜(Khavarjaa)’, ‘주슬란(Zuslan)’, ‘나마르짜(Namarjaa)’, ‘우불지(Övöljee)’처럼 각각 ‘봄(Havar)’, ‘여름(Zun)’, ‘가을(Namar)’, ‘겨울(Övöl)’을 의미하는 몽골어 명칭처럼 계절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들의 거주지 인식은 ‘따뜻한(Garm)’과 ‘서늘한(Sard)’을 포함하는 페르시아어 ‘가름시르(Garmsīr)’와 ‘사르드시르(Sardsīr)’처럼 거주지의 기후 조건도 담지 않으며, 쿠르디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유목 부족(Jamā’at)’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조마(Zom, Zome, Zomas, Zozan)’<sup>31</sup>나 ‘산간(Kiū)’의 입지 환경을 나타내는 쿠르드어 ‘키우스탄(Kiṽstān)’<sup>32</sup>과도 달랐다(최남섭·전봉희, 2022: 124-125). 이곳에서도 ‘따뜻한 곳(Germiān)’이나 ‘서늘한 곳(Sardsīr)’을 뜻하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부차적 구분이었다.<sup>33</sup> 하우람인들이 거주지 구분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마을’과 매년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임시 거주지’처럼 장소 확보의 안정성에 있었다(최남섭, 2019: 167).

하우람인들은 계절과 거주지 성격을 고려해 야나(Yāna), 카왈(Kawal), 카프르(Kapr)라는 돌집을 구분해 사용했다(표 2). 그중에 ‘야나’는 하우람어로 ‘집’을 뜻하는 겨울용 돌집이다. 야나는 동영지의 가파른 산비탈을 뒷벽으로 이용하고 앞쪽 세 면에 돌벽을 쌓아서 공간을 구획한 뒤에 평평한 지붕을 얹어서 만들고, 벽체와 지붕에 흙을 발라서 겨울철의 차가운 외기를 막았다. 대체로 안정적으




<sup>30</sup> 하우람어로 여름을 뜻하는 ‘하윈나(Hāwin)’를 더해 ‘하윈나 하와르(Hawina Hawār)’라고 부르지만, ‘하와르’ 자체는 계절과 기온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최남섭, 2019: 166).

<sup>31</sup> 하우람어에서 z와 j의 발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Jāme’ 혹은 Jamā’at를 줄여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최남섭·전봉희, 2021: 125).

<sup>32</sup> ‘Kiū’ 혹은 ‘Kiṽ’는 쿠르드어로 산이다(Saadallah, 1998: 1210).

<sup>33</sup> ‘서늘한 곳’은 페르시아어와 같지만, ‘따뜻한 곳’은 하우람어에서 장소를 뜻하는 어미 ‘Ān’을 사용해 달랐다.

표 2 세 가지 돌집의 사용 계절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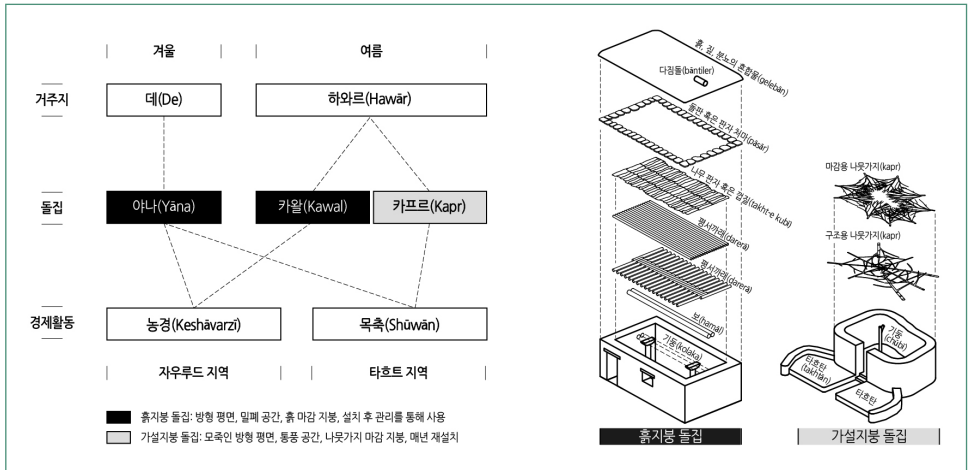
돌집 전경			
명칭	야나(집)	카왈(과수원의 집)	카프르(나뭇가지)
사용계절	겨울	여름	여름
사용지역	하우라만 전역	타흐트 지역	자우루드 지역

출처: 필자 촬영.

로 모여서 생활하는 데에서 야나는 경사지를 따라 연이어 배치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강조하는 ‘계단식 조직(Bātf-e Pelekāni)’<sup>34</sup>의 경관을 만들었다(Zarei, 2013: 282; Hawrāmī, 2013: 230-231; Hamzeh’ee & Baqernasab, 2017: 66). 카왈과 카프르는 각각 타흐트와 자우루드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여름용 돌집이다. 여기서 ‘카왈’은 ‘과수원의 집(Khāne-ye Bāqhi)’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형 평면과 밀폐된 공간이 야나와 동일하다. 하지만 야나가 여러 개의 방, 창고, 부엌, 가축우리를 포함하는 것과 다르게, 카왈은 방, 창고, 부엌을 하나씩만 갖춘 최소한의 주거공간만을 가졌다. 카왈은 가구별로 나뉘는 경작지마다 분산 배치되어 독특한 경관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야나와 달랐다. 그리고 ‘카프르’는 ‘나뭇가지(Kapr)’를 의미하는 돌집으로서 앞서 언급한 두 돌집과 구조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다르다. 카프르는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 평면을 따라 세운 벽체 위에 겹질을 벗기지 않은 나뭇가지를 겹겹이 없어서 지붕을 만들었다.<sup>35</sup> 카프르의 벽체는 흙을 사용하지 않아 바람이 통하는데(Khoshkechīn), 이는 무덥고 비가 오지 않는 여름 기후를 고려한 결과다(최남섭·전봉희, 2022: 125). 카프르는 모죽인 방형 평면, 다

<sup>34</sup> 이 용어는 현지에서 고안한 명칭은 아니라, 이에 앞서 영국 여행자 디슨(B. Dickson)이 먼저 사용한 ‘계단식 구축원리(Staircase Principle)’라는 용어의 번역어로 생각된다(Dickson, 1910: 361).

<sup>35</sup> 일반적으로 카프르는 자그로스 산맥 남부의 무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갈대, 수수, 야자수일, 나뭇가지 등으로 만든 경량 건축을 가리킨다(Zargar, 2004: 167). 이와 다르게 하우라만의 카프르는 지붕은 가볍지만, 벽체를 돌로 쌓아 무거운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필자 작성.

그림 3 흙지붕 돌집과 가설지붕 돌집 유형 분류

듬지 않은 목부재 사용, 시공의 단순성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신석기 주거형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Ramezāni, 2016: 223-225). 이 외에도 카프르는 주로 공동목축(Shūwān)<sup>36</sup>에 종사하는 거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야나처럼 밀집 배치하지만 지붕형식이 달라 계단식 경관을 만들지는 않았다.

하우라만의 세 가지 돌집은 흙지붕과 가설지붕 돌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야나와 카왈’은 흙지붕이고, ‘카프로’는 가설지붕이다. 그중에 흙지붕은 벽체를 가로질러 놓은 보(Hamāl) 위에 수평 방향으로 평서까래(Darerā)와 판자(Takhta)를 순서대로 설치하고, 흙과 짚, 가축 분뇨의 혼합물(Gelebān)로 지붕면(Banjīle)을 덮어서 마감한다. 규모가 큰 돌집에서는 지면에서부터 초석(Zīr Tūwān), 기둥(Kōlaka), 주두(Sar Kōlaka)를 추가해 지붕을 지지한다. 흙지붕은 비가 오는 날에 둥근 돌(Bāntīler)로 상부를 다져서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가설지붕은 매년 다시 설치하는 임시적인 구조다. 실제로 카프르의 지붕은 여름이 되기 전에 젊은 남성들이 주변에서 잘라 온 나뭇가지로 만든다. 이런 지붕의 설치는 간단하다. 먼저 실내의 중앙에 나무 지주(Chūbī)를 세운 뒤에 벽체와 지주 상부를 연결하는 굵은

<sup>36</sup> 페르시아어 ‘Chūpān’에 해당한다.

나뭇가지(Kapr)를 놓아 방사형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잔가지(Kapr)를 덮어서 완성한다.<sup>37</sup> 가설지붕 형식은 흙으로 마감하지 않아 비를 막지 못하며(최남섭·전봉희, 2022: 126),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 이를 대체하는 타흐탄(Takhtān)<sup>38</sup>이라는 토단이 발달했다(최남섭, 2019: 171-174).

이와 같은 두 가지 지붕형식의 돌집은 지역별 경제활동과 거주역사 외에도 하우라만의 건축 전통을 이해하는 단서다. 농작하기 어려울 만큼 경사가 심한 타흐트 지역에서는 주로 공동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山口昭彦, 2000: 258-259). 이곳의 거주민들은 여름이 되면 적절한 기온, 충분한 수원과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따뜻한 계곡의 테를 떠나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서늘한 하와르로 1~10차례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작은 우물(Hāna, Hāni, Khāni, Kāni, Āu), 실개천(Dare), 지표면의 눈(Warwa, War)이나 수직 동굴에 쌓인 눈(Bir)처럼 불안정한 수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기후 변화에 맞추어 이용하는 하와르도 달라졌다(최남섭, 2019: 167). 이와 다르게 주로 농사를 지으며 여름을 보내던 자우루드의 거주민들은 물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강(Cham, Rūd, Rō) 주변의 하와르 한 곳만을 이용했다(최남섭·전봉희, 2021: 125). 이렇듯 하우라민들이 기원한 타흐트에서는 매년 사용 여부가 달라져 폐지와 개척을 거듭한 임시적인 하와르를 이용했고, 상대적으로 늦게 거주한 자우루드 지역에서는 명칭의 의미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하와르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하우라만에는 목축을 위해 겨울과 여름에 안정성이 다른 거주지 성격에 맞추어 흙지붕과 가설지붕을 구분해 사용하고, 농사를 위해 계절별로 흙지붕 돌집의 공간 구성을 조절하는 건축 전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sup>37</sup> 거주민들은 지붕에 설치하는 나뭇가지의 굵기로 용도를 구분하지만, 각각을 다르게 부르지는 않는다(최남섭·전봉희, 앞의 논문, 2021, 각주 29).

<sup>38</sup> 흙으로 높이 20~30cm의 단을 쌓고 가장자리에 돌을 둘러 만든다. 원래 하나의 단을 타흐트(Takht)라 부르지만, 두 개의 타흐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수와 상관없이 복수형 타흐탄이라 부른다(최남섭, 2019: 171).

## 2. 흠지붕 돌집의 예배실 수용과 상대적 크기 표현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흠지붕 돌집 구조에 예배실(Namâz-khâne 혹은 Shabestân), 이완(Īwân),<sup>39</sup> 세정실(Vozū-khâne), 시신세척실(Mordeshūr-khâne 혹은 Ghasâl-khâne), 공용화장실, 창고 등을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탕기바르(Tangivar)의 압둘라 이븐 오마르 모스크(Masjed-e 'Abd Allah ibn 'Omar)<sup>40</sup>처럼 예배실과 전실 이완만을 포함하고 세정실과 화장실을 인접한 하천에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sup>41</sup> 하지만 대부분은 겔란(Gelân)의 피르 모함마드 모스크(Masjed-e Pir Moḥammad),<sup>42</sup> 파베의 하자르젠데 모스크(Masjed-e Khażarzande),<sup>43</sup> 팔란간의 세로 피리 모스크(Masjed-e Serō Pīr),<sup>44</sup> 토리바르(Tōrivar), 타아(Tā), 카쉬타르(Kāshṭar)의 자미 모스크(Msajed-e Jām' e)처럼 예배실, 세정실, 화장실을 포함했다. 종종 둘랍(Dūlāb)의 모함마드 소플라 모스크(Masjed-e Maḥammadi-ye Soflā)처럼 시신세척실을 포함하거나, 파이겔란(Pāigelān)처럼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곳의 모스크는 대부분 단층 규모지만 층고가 3.5m를 넘는 경우가 많아 팔란간의 바와 셰이흐 모스크(Masjed-e Bāwa Sheikh)와 샤라칸(Sharakān)의 자미 모스크처럼 내부에 2층 바닥을 설치할 수 있었다(표 3). 온전한 2층 규모는 둘랍의 모함마드 올리야 모스크(Masjed-e Maḥammadi-ye 'Oliyā)나 아비한그(Āvihang)의 자미 모스크처럼 제한적인 경우에만 확인된다. 두 모스크가 카자르조 말기에 지금처럼 증축된 점을 고려하면(Zarei,

39 이완(Īwân)은 건축적으로 배럴볼트 구조를 천장에 설치한 방형 평면을 가지는 커다란 홀이며, 한 면에 벽체를 세우지 않은 반외부공간을 의미한다(Van Donzel et al., 1997: 287). 하우라만에서는 평평한 지붕을 설치한 경우에도 이완이라고 부르며(Zarei, 2010: 33; 66), 이런 공간은 모스크의 출입구 전실이나 2층 예배공간(Shabestân)에 사용했다.

40 거주민들은 이 모스크가 압둘라 이븐 오마르의 생전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당시에 사용한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믿는다(Ṭālebniyā et al., 2024: 9-10).

41 이 모스크 앞에 있는 별동의 창고는 근래에 건립된 건물이다.

42 '99명의 피르들' 중에 한 명인 피르 모함마드와 연관된 모스크라고 전한다(Ṭālebniyā et al., 2024: 9-10).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피르 샬리야르의 부친 피르 모함마드 게이비(Pir Moḥammad Gheibi)와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는 피르 모함마드(Pir Moḥammad)가 있지만(Hawrāmī, 2007: 364-369), 누구도 이곳과 관련된 일화를 남기지 않았다.

43 모스크에 있는 설명문에 따르면, 730여 년 전에 모아즈 이븐 조발의 후손 중에 카지 자브레일(Qāzi Jabra'il)이라는 인물이 처음 건립했다고 전한다.

44 사루 피리 모스크(Masjed-e Sarū Pīr)라고도 부른다(Ṭālebniyā et al., 2024: 12).

표 3 지역형 모스크의 규모와 예배실 기둥 높이

				
[탕기바르] 압둘라 모스크 - 1층, 기둥 높이=3.4m (출처: 필자 촬영.)	[돌랍] 모함마드 소플라 모스크 - 2층, 기둥 높이=3.5m (출처: 필자 촬영.)	[돌랍] 모함마드 올리야 모스크 - 2층, 기둥 높이=3.5m (출처: 필자 촬영.)	[겔린] 피르 모함마드 모스크 - 1층, 기둥 높이=?m (출처: Ṭālebniyā, 2024: 6.)	[토리바르] 자미 모스크 - 1층, 기둥 높이=3m (출처: 필자 촬영.)
				
[팔란간] 바와 세이흐 모스크 - 1층, 기둥 높이=3m (출처: 필자 촬영.)	[팔란간] 세로 피르 모스크 - 중2층, 기둥 높이=3m (출처: 필자 촬영.)	[브즐라네] 자미 모스크 - 중2층, 기둥 높이=3m (출처: H. Maḥmūdī 제공.)	[샤라간] 자미 모스크 - 중2층, 기둥 높이=3.5m (출처: Abādī, 2023: 142.)	[타이] 압둘라 모스크 - 1층, 기둥 높이=3.5m (출처: Ṭālebniyā, 2024: 9.)
			(훤철 후 확인 불가)	
[아비한기] 자미 모스크 - 2층, 기둥 높이=3.5m (출처: Zarei, 2013: 139.)	[카쉬타리] 자미 모스크 - 1층, 기둥 높이=3.5m (출처: Ṭālebniyā, 2024: 13.)	[파베] 하자르젠데 모스크 - 1층, 기둥 높이=3.1m (출처: K. Karīmī 제공.)	[파이겔란] 자미 모스크(훤철) - ?층, 기둥높이=?m (-)	[파이겔란] 시신세척실, 공용화장실 - 1층, 기둥높이=?m (출처: 필자 촬영.)

2010: 10; Zarei, 2013a: 138),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는 단층이 주류였고 예배실의 높은 천장고와 넓은 폭 때문에 주변의 일상적인 돌집과 구별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상대적 크기는 하우라만의 모스크가 외적으로 존재감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곳의 어떤 모스크에서도 반짝이는 대리석이나 황금처럼 주변의 돌집과 대비되는 재료, 예배공간이나 성인의 묘소를 강조하는 반구형 구조의 돔(Qubba, Gonbad),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계획된 침두아치 구조의 이완(īwān)이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곳의 모스크에서는 복잡한 패턴으로 계획한 아라베스크(Arabesque)도 새겨진 적이 없고, 이맘이 설교하는 미흐랍(Miḥrāb)의 상부를 중유

석 모양으로 만든 무카르나스(Muqarnas)도 설치된 적이 없으며,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드는 민바르(Minbar)도 없었다. 하우라만에서는 매일 정해진 예배시간을 알리기 위해 높게 세우는 상징적인 첨탑(Minār)도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토리바르와 타아 마을의 철제 첨탑이나 팔란간의 세로 피리 모스크에서 벽체 바깥으로 돌출된 녹색 철판으로 만든 미흐랍은 모두 20세기 말의 작품이다. 이곳의 모스크는 바깥으로 두드러지는 건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무슬림 공동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예배실을 확보하면서 커진 크기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다소 많은 개구부와 한쪽 벽면을 통째로 덜어낸 이완 등이 거주민들에게는 모스크의 부수적 상징이었겠지만, 이를 외부인들이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산맥을 지나 이틀 밤을 꼬박 달려서 목요일 아침에 콜라기(Qōlāghī)에 도착했다. 그리고 자한아바르 초원에서 명령했다. “적들이 달아날 만한 모든 길과 장소를 장악하여 지키도록 하라.” 그들은 하바샤(Habashā)라고 부르는 성채(Qal‘e)와 산보다도 견고한 여러 문을 가졌는데, 그곳에 이르는 길들은 극도로 험준하고 좁았다. 투르크멘인들은 그 지역에 숨어 좁은 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승전군이 나아가 전쟁을 벌였다. … 거만한 투르크멘인들은 일부 승전군이 가한 공격의 위력을 보았을 때, 바로 영광스러운 라마단 월의 첫 번째 날 밤(1393년 7월 11일)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두고 (하)우라만 산(Kūh-e Ūramān)에서 뒤쪽으로 무기력하게 달아났다. … 목숨을 구한 몇몇 도망자들은 상처를 입고 지친 채로 따뜻한 곳(Garmsīr)을 통과해 달아났다. 그 지역에는 다른 성채도 있었는데, 신을 숭배하지 않는 이교도 무리(Jamā’ati-e Ghabrān-e Bīdīn)<sup>45</sup>가 모여 있었다. 사힉키란은 그곳의 점령과 파괴를 명했고 즉시 하늘과 같은 군대가 그 주변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난 뒤에 전투가 발발했다. 영원과 결합한 행운의 힘으로 점령했으며 성채의 주민들은 흙무더기로 소멸되었다.

(Yazdī, 2008/9: 508-509; 이주연, 2020: 544-546. 수정.)

<sup>45</sup> *Gabr*는 현지에서 이슬람 이전에 있던 조로아스터교도로 이해하기도 하고(Soltāni, 2001: 323), 인도의 힌두교도, 터키 동부의 유럽인들, 조지아의 정교회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다(이주연, 2020: 546).

이 때문에 하우람인들은 이교도로 오해받기도 했다. 야즈디(Sharaf al-Dīn 'Alī Yazdī, ?~1454 CE)가 남긴 『자파르나메(*Zafar-nāme*)』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1393년 7월에 아미르 티무르의 군대는 타흐트 지역에 들어와 3일 동안 투르크멘인들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섬멸했다. 콜라기(Qōlāghī)<sup>46</sup>나 하바샤(Habashā)<sup>47</sup>처럼 지금도 현지에서만 확인 가능한 지명을 기록한 야즈디는 하우람인들을 가리켜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 무리(Jamā'atī-e Ghabrān-e Bīdīn)’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롭다. 당시는 하우라만의 첫 번째 이슬람 부흥기여서 곳곳에서 99명의 피르들과 대외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피르 샬리야르가 활약했고, 하우라만 타흐트, 셀린, 볼바르, 압바사바드, 네빈 등지에는 모스크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 일대에서 전투를 치른 티무르의 군대가 이들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야즈디는 그들을 이교도라고 단정했다. 이는 전야의 거주민들을 빈번하게 비하한 야즈디의 평소 태도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 티무르군이 정복한 이스파한, 바그다드, 타브리즈의 거대 모스크 경험만 만들어낸 그의 건축적 선입견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현존하는 모스크에 비해 규모도 작고 지금처럼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리, 아스팔트 슈트, 철물도 덧대지 않아 외부적으로 더 구별되지 않았을 당시 모스크의 외형적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 3. 남측 벽체의 미흐랍과 목조 기둥-주주의 장식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내부적으로 예배에 필요한 시설과 장치를 갖추었다. 보통 두께 1m가 넘는 돌 벽체에는 서적이거나 물품을 수납하는 감실이나 창과 문을 비롯한 개구부를 만들었고,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남측 벽체에는 커다란 개구부

<sup>46</sup> 하우라만 타흐트에서 서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다레키(Darekī)와 카말라(Kamāla) 사이에 있는 언덕이다. 현지에서 이곳은 ‘콜라기(Qōlāghī)’, 혹은 ‘콜레기(Qōlegī)’라고 불리는 지역으로서 하우람어로 ‘깊은 웅덩이’를 의미한다(최남섭, 2022: 223).

<sup>47</sup> 하우라만 타흐트에서 동남쪽으로 12.5km 거리에 압바사바드라는 마을이 있다. 보통 현지에서는 하와사와(Hawāsāwa) 혹은 하사와(Hawāsā)라고 부르는데, 티무르군의 동선이나 주변 지역의 지명을 고려하면 야즈디가 쓴 ‘하바샤’는 압바사바드였을 가능성이 크다.

표 4 지역형 모스크의 미흐랍과 기둥 사용

				
<p>[탕기바르] 압둘라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녹색 기둥 3개 (출처: 필자 촬영.)</p>	<p>[둘랍] 모함마드 소플라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백색/하늘색 기둥 4개 (출처: 필자 촬영.)</p>	<p>[둘랍] 모함마드 올리야 모스크 - (1층) 이형 미흐랍 - 노란/하늘색 기둥 4개 (출처: Ṭālebniyā, 2024: 5.)</p>	<p>[둘랍] 모함마드 올리야 모스크 - (2층) 미흐랍 미확인(×) - 미채색 기둥 4개 (출처: P. Ṭālebniyā 제공.)</p>	<p>[겔린] 피르 모함마드 모스크 - 아치형 상부 미흐랍 - 청색 기둥 4개 (출처: Ṭālebniyā, 2024: 6.)</p>
				
<p>[토리바르] 자미 모스크 - 아치형 상부 미흐랍 - 백색 기둥 4개 (출처: 필자 촬영.)</p>	<p>[팔란간] 바와 세이흐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녹색 기둥 6개 (출처: 필자 촬영.)</p>	<p>[팔란간] 세로 피리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미채색 기둥 4개 (출처: 필자 촬영.)</p>	<p>[브즐라네] 자미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청색 기둥 4개 (출처: Ṭālebniyā, 2024: 7.)</p>	<p>[샤라간] 자미 모스크 - 아치형 상부 미흐랍 - 흑백 기둥 4개 (출처: 'Abādī, 2023: 140.)</p>
				
<p>[타이] 압둘라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청색 기둥 8개 (출처: Ṭālebniyā, 2024: 9.)</p>	<p>[아비한그] 자미 모스크 - (1층) 평평한 미흐랍 - 녹색기둥 6개 (출처: Y. al-Mas 제공.)</p>	<p>[아비한그] 자미 모스크 - (2층) 미흐랍 미설치(×) - 녹색 기둥 6개 (출처: Ṭālebniyā, 2024: 8.)</p>	<p>[카쉬타르] 자미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청색 기둥 6개 (출처: Ṭālebniyā, 2024: 13.)</p>	<p>[파베] 하자르첸데 모스크 - 평평한 상부 미흐랍 - 백색 기둥 4개 (출처: T. Haidari 제공.)</p>

를 내어 미흐랍을 만들고 주변에 코란 구절과 성물을 배치해 키블라 벽체를 꾸몄다(표 4). 보통 미흐랍은 벽체의 두께를 넘지 않는 깊이로 구획한 뒤에 이맘의 자리를 나타내는 작은 카펫을 바닥에 깔아 만들었는데, 그 상부는 겔린이나 토리바르의 모스크처럼 아치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둘랍의 모함마드 올리야 모스크처럼 개구부 주변에 장식을 붙여서 꾸미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거칠게 만든 박스형 개구부처럼 평평했다. 이렇게 형태가 단순한 미흐랍은 키블라 벽체 중앙에 높이 2.5m, 폭 2.2m 정도의 개구부여서 채광용 창문의 크기를 압도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거주민들이 메카의 방향을 혼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확장된 흠지붕을 받치는 목조 기둥과 주두는 더 두드러진 장치였다. 그중에 기둥은 나무껍질을 벗기고 적절한 형태로 다듬어 만들었다. 토리바르나 아비한그 모스크의 원형 기둥이나 샤라칸 모스크의 정방형처럼 기하학적 형태로 가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방형 기둥의 모서리를 투박하게 깎아내 만든 팔각형이나 모죽인 방형을 선호했던 것 같다(표 4). 보통 높이 3m가 넘는 기둥에는 채색해 장식성을 더했다. 팔란간<sup>48</sup>과 탕기바르의 녹색, 토리바르와 파베의 백색, 카쉬타르와 브즐라네의 청색, 샤라칸의 백색과 흑색, 둘랍의 백색, 노란색, 하늘색처럼 마을마다 다른 색상을 사용했다. 각 색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채색 기둥은 종교시설에만 사용했고, 아비한그나 둘랍의 모스크에서 1층 기둥에만 색을 입힌 것처럼 모스크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실을 장식하는 특수 기법이였다. 이 외에도 예배실의 기둥 개수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파베를 정복한 압둘라 이븐 오마르가 불의 사원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세운 모스크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본인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Bābāni, 2013: 39-40), 수니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곳의 거주민들은 네 기둥이 네 명의 칼리파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알리를 의미한다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후대의 해석은 상상력의 소산인 경우가 많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곳에는 네 기둥을 사용한 모스크가 많긴 하지만, 반드시 네 개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탕기바르 모스크의 기둥 3개, 팔란간, 아비한그, 카쉬타르 모스크의 기둥 6개, 타아 모스크의 기둥 8개는 예배실 규모에 맞추어 구조적으로 필요한 기둥 개수를 산정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

기둥보다 주두가 더 장식적이였다. 이 부재는 흠지붕의 무게를 지면으로 전달하는 수평 방향의 보와 수직 방향의 기둥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재로서, 하우라만에서는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아지는 역삼각형이나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다(표 5). 그중에서도 둘랍, 팔란간, 샤라칸, 타아, 아비한그, 카쉬타르의 모스크와 하우라만 타흐트, 압바사바드, 지바르(Zhivār)의 훼손된 모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주민들은 역삼각형을 선호했던 것 같

<sup>48</sup> 1970년대 바와 셰이흐 모스크 내부의 목부재가 전면 교체되었다. 현재 예전에 쓰던 녹색 주두와 기둥은 이 모스크 앞에 방치되어 있다(최남섭, 2022: 236).

표 5 지역형 모스크의 주두 유형과 특성

 <p>[장방형] : 흙, 문양, 채색</p> <p>[탕기바르] 압둘라 모스크(내부)</p>	 <p>[장방형] : 흙</p> <p>[탕기바르] 압둘라 모스크(외부)</p>	 <p>[역삼각형] : 흙, 문양, 채색, 수리연대</p> <p>[둘랍] 모함마드 소플라 모스크</p>	 <p>[역삼각형] : 흙, 문양, 채색</p> <p>[둘랍] 올리아 모스크(1층)</p>	 <p>[이형] : 원형, 흙</p> <p>[둘랍] 올리아 모스크(2층)</p>
 <p>[정방형] : 채색</p> <p>[겔린] 피르 모함마드 모스크</p>	 <p>[역삼각형] : 기둥 상부 가공, 채색</p> <p>[토리바르] 자미 모스크</p>	 <p>[역삼각형] : 돌니흙, 채색</p> <p>[말란간] 바와 세이흐 모스크(철거)</p>	 <p>[역삼각형] : 돌니흙</p> <p>[말란간] 세로 피르 모스크</p>	 <p>[역삼각형] : 돌니흙</p> <p>[말란간] 웨철 후 방치 주두</p>
 <p>[장방형] : 흙, 문양, 채색</p> <p>[브즐라네] 자미 모스크</p>	 <p>[역삼각형] : 채색</p> <p>[사라칸] 자미 모스크</p>	 <p>[역삼각형] : 흙, 채색</p> <p>[타야] 압둘라 모스크-1</p>	 <p>[역삼각형] : 흙, 채색</p> <p>[타야] 압둘라 모스크-2</p>	 <p>[역삼각형] : 원형, 코란 구절</p> <p>[아비한그] 자미 모스크(1층)</p>
 <p>[역삼각형] : 원형, 코란 구절</p> <p>[아비한그] 자미 모스크(2층)</p>	 <p>[역삼각형] : 흙, 채색</p> <p>[카쉬타르] 자미 모스크</p>	 <p>[역삼각형] : 흙, 채색</p> <p>[파베] 하자르첼테 모스크</p>	 <p>[역삼각형] : 원형, 문양</p> <p>[하우라만 타흐트] 자미 모스크(웨철)</p>	 <p>[역삼각형] : 원형</p> <p>[하우라만 타흐트] 피르 샬리아르 부역</p>
 <p>[장방형] : 원형, 수리연대, 채색</p> <p>[파이겔란] 시신세척실</p>	 <p>[장방형] : 원형, 수리연대</p> <p>[파이겔란] 백의 저택</p>	 <p>[역삼각형] : 흙</p> <p>[압바사바드] 자미 모스크(웨철)</p>	 <p>[역삼각형] : 돌니흙, 채색</p> <p>[지바르] 미상(웨철 후 재사용)</p>	 <p>[장방형] : 원형, 문양</p> <p>[탕기사르] 미상(웨철 후 재사용)</p>

출처: 필자 작성.

다. 장방형은 탕기바르, 브즐라네, 파이겔란, 탕기사르(Tangisar)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모함마드 올리아 모스크의 2층 예배실에 설치한 가운데가 잘록한 형상은 극히 예외적이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주두는 가장자리에 흙을 파거나 물방울처럼 보이는 형상을 조각했다. 여기에는 아비한그 모스크의 “알라(Allah)”, “알라의 이름으로(Bism Allah)”, “은혜롭고 자비로운 알라의 이름으로(Bism Allah al-Rahmān al-Rahīm)”처럼 종교적 구절을 넣거나, 둘랍과 파이겔



출처: 필자 촬영.

그림 4 돌랍 대장간의 장식 철물

란 모스크처럼 수리연대를 새기기도 했고,<sup>49</sup> 탕기바르, 돌랍, 브즐라네, 하우라만 타흐트, 탕기사르처럼 특수한 문양을 새겨서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이런 주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켈린의 피르 모함마드 모스크에서 기둥 위에 판재 한 장을 올리거나 토리바르 모스크에서 주두를 생략하고 원형 기둥의 상부를 방형으로 가공한 것을 보면, 거주민들은 보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조각, 문양, 채색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 이처럼

화려하게 장식한 주두는 예배실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는 핵심 부재였다고 볼 수 있다.

마을마다 비슷한 형태의 주두를 공유한 경향은 주목해야 한다. 탕기바르 모스크의 예배실과 이완에서 사용한 주두는 장방형이다. 아비한그 모스크의 1층과 2층 예배실에 설치한 주두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이며 좌우에 둥근 형태가 조각되고 중앙 부분에 코란 구절이 새겨졌다. 팔란간의 두 모스크에서 사용된 주두는 좌우에 톱니처럼 조밀한 홈을 새긴 역삼각형이다. 파이켈란의 모스크는 철거되어 주두 형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시신세척실과 벡(Beg)<sup>50</sup>의 저택에 사용된 주두가 장방형, 물방울 조각, 수리연대를 공유한다.<sup>51</sup> 하우라만 타흐트 박물관에 전시된 자미 모스크의 주두와 피르 샬리야르 부엌의 주두도 중앙 부분의 문양 외에는 동일하다. 돌랍의 두 모스크에 사용한 주두는 형태와 문양까지도 비슷하다. 이곳의 대장간에 남아있는 도안용 철물은 돌랍의 거주민들이 특정

49 주두를 사용하지 않은 토리바르의 자미 모스크에서는 미흐랍의 바깥쪽 상부 인방재에 “1928/9년에 수리(Tāriḳh-e Ta’mir-e Sene-ye 1347 AH)”라고 수리연대를 새겨 넣었다(최남섭, 2022: 231). 파베의 하자르젠데 모스크에서는 주두 대신에 “1965/3년 하즈라테 하자르 모스크의 수리. 신의 축복이 있기를. 2011/2년에 새롭게 수리(Ta’mir-e Masjed-e Kbeḡrat-e Kbaḡar E’alib Allah 1344 AP Sene-ye Shamsi Ta’mir-e Jadid-e 1390 AP)”라는 수리내력을 기둥에 새겼다.

50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전까지 하우라만에는 마을마다 외지 출신의 벡(Beg)과 지역 출신의 케드호다(Kedkhodā)가 있었다고 전한다. 둘의 정확한 역할과 상호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벡이 케드호다보다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벡이 머물던 저택이 관공서 기능의 일부를 담당했던 것 같다.

51 현재 파이켈란의 시신세척실도 철거되어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문양을 두 모스크에 동일하게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분명한 단서다(그림 4). 이런 마을 단위의 공유 경향을 고려하면, 압바사바드, 지바르, 탕기사르의 버려진 주두를 통해 철거된 모스크나 주요 시설의 주두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복합적으로 장식한 기둥과 주두를 가지고 내부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권위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중에 장식 주두는 마을마다 달랐던 거주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상의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 IV. 이슬람의 모스크 원칙과 동영지 기념비 전통의 접목

##### 1. 여름철 경제활동 종사와 개인적 예배시설 이용

하우람인들은 하와르에서 모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름은 거주민들이 지역별로 공동목축과 가구별 농사에 종사하는 시기여서 각기 다른 이유로 모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중에 타흐트의 여름은 생각보다 바깥고 흠어져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매년 1~10차례 양, 염소, 소, 닭을 몰고 서늘한 기온, 충분한 수원과 초지를 찾아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하와르로 이동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가구 정도로 나뉘어 더 작은 하와르로 이동한 경우도 빈번했다(최남섭·전봉희, 2021: 127).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거주민들은 매일 정해진 일도 해야 했다(표 6).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양과 염소의 젖을 짜고, 그 사이에 성별로 나뉜 임무도 수행했다. 여성들은 오전 5시에 일어나 집 주변을 정리하고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다. 그들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목동들이 산에서 몰고 온 양과 염소의 젖을 짠 뒤에 마스트(Māst), 두흐(Dūkh), 카식(Kashik), 케리(Kerī), 두윈나(Dūwīna)<sup>52</sup> 등의 유제품을 만들었고, 틈

<sup>52</sup> 마스트는 요거트와 같다. 그리고 두흐는 마스트, 민트, 물을 섞어서 염소 가족 주머니(Halız)에 넣고 1시간 이상 흔들어서 만드는 음료이며, 카식은 양과 염소의 젖을 응고시켜 햇빛에 말린 유제품이다. 케리는 버터고, 두윈나는 물, 우유, 요거트, 보리를 섞어 말린 반죽으로서 보통 물과 함께 끓여 죽처럼 먹는다(최남섭, 2019: 163).

표 6 공동목축 일과표

시간	여성	남성	순번 목축	예배	물건기
05:00	기상		야간조 (2~3명)	-	수시 (여성, 아이)
06:00	아침 식사, 집 정리			○	
07:00	젓 짜기		교대	-	
08:00	유제품 제작, 실 꼬기 등	목초 관리, 집 보수	주간 1조 (2~3명)	-	
09:00				-	
10:00				-	
11:00				-	
12:00	젓 짜기		교대	-	
13:00	점심 식사		주간 2조 (2~3명)	○	
14:00	유제품 만들기, 실 꼬기 등	목초 관리, 집 보수		-	
15:00				-	
16:00				○	
17:00	젓 짜기		교대	-	
18:00	저녁 식사		야간조 (2~3명)	○	
19:00	집 정리, 세면	세면		-	
20:00				-	
21:00	취침	취침		○	

출처: 필자 작성.

틈이 염소털이나 양털로 실도 꼬았다(최남섭, 2019: 163). 무엇보다 기상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물을 길어오는 일은 여성들에게 실 틈을 주지 않았다. 남성들도 한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순번을 정해서 2000마리 이상의 가축을 끌고 초지로 나갔다가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으며, 그렇지 않은 날에는 겨울용 여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비탈로 흩어졌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반복해야 했다. 이렇게 가축 구성원도 모이기 어려운 일상에서 거주민들이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두 모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가설지붕 돌집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매년 사용 여부도 불확실한 모든 하와르에 흩지붕 돌집 구조의 모스크를 만들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우루드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한가로운 여름을 보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해발고도와 무관하게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한 곳의 하와르를 확보하고 한 차례만 이동했다. 그곳에서 밀, 보리, 석류, 포도, 체리,

딸기, 산딸기 등을 재배하고 작물을 수확한 뒤에 데로 돌아왔다. 이런 단순한 생활에서도 산비탈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거나 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는 온 가족이 매달릴 만큼 바빴지만, 농작물을 관리하는 기간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다(최남섭, 2022: 141). 이런 자우루드의 하와르에서도 모스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곳의 데는 보통 10개 이상의 하와르를 보유하고, 여름마다 거주민들은 가구별로 농작하는 규모에 맞추어 흩어져 있는 하와르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민들이 특정 하와르를 선택해 모스크를 세우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불과 3km 정도 거리에 있는 데의 모스크를 이용하더라도 산비탈을 내려와 계곡을 따라 걸어서 왕복하려면 만나질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최남섭·전봉희, 2021: 129-130). 자우루드의 돌집 카왈이 방, 부엌, 창고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주거공간을 가지는 이유도 서로 왕래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우루드에서는 안정적으로 여름을 보냈지만, 가구별로 분산된 하와르에서 나뉘어 생활했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모스크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르 고지반(Gōzībān)의 모스크는 매우 이례적이다. 고지반에서는 팔란간의 거주민들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머무르며 여름 생활을 시작하고, 8월 중순부터 40일 동안 복귀를 준비하며 여름 생활을 마무리한다(최남섭, 2019: 164). 이곳은 데에서 가장 가깝고, 하나(Hāna)라는 커다란 우물도 있으며, 거주민들도 흙지붕 돌집을 사용했다.<sup>53</sup> 이처럼 안정적인 하와르의 모스크는 12×7m 크기의 장방형 공간에 높이 1m 정도의 돌벽을 두르고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야외공간이었다(그림 5). 이는 건물이라기보다는 모스크라고 부르던 공동의 예배공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하와르에서 거주민들은 자연지물과 돌집에 마련된 부속시설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예배했다. 그중에 투완마(Tūwānmā)가 대표적이다. 이는 하우람어로 ‘돌’을 의미하는 ‘투완(Tūwān)’

<sup>53</sup> 오스만조의 세금대장(TT 1066)에 마을로 기재된 하와르는 팔란간의 고지반과 달(Dal)의 헤슈르(Hesūr) 뿐이다(그림 1). 헤슈르에서도 흙지붕 돌집을 사용했지만 모스크라고 부르는 건물이나 공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현재 고지반에서도 모스크라고 부르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름 생활에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필자 촬영.

그림 5 지붕없는 모스크(좌), 투완마(중), 타흐탄(우)

과 ‘예배’를 뜻하는 ‘나마(Namā)<sup>54</sup>가 합쳐진 명칭으로서 보통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상부가 평평한 바위다(최남섭, 2019: 171). 거주민들은 별도의 종교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야나와 카프르의 실내공간이나 그 앞에 설치한 타흐탄도 개인 예배에 활용했다. 이처럼 하와르에서 개인적이고 간단한 예배시설의 이용이 성행한 까닭은 바쁜 일상을 보내거나 흩어져 생활하는 거주민들이 무리하게 특정 시간과 장소에 모이기보다는 각자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 2. 겨울철 한가한 생활과 거주 공동체의 모스크 공유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데에서 사용하는 종교시설이었다. 이곳의 겨울은 일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만큼 춥다(Mohit-e Andish-e Pāidār, 2010: 14). 이 때문에 거주민들은 주로 집 주변에서만 가축을 돌보고 특별한 농작물도 키우지 않았다. 지금처럼 겨울철에 집중되는 눈이 3m 이상 쌓이는 경우도 잦아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길도 빈번하게 차단되었다(Mohit-e Andish-e Pāidār, 2010: 15). 이렇게 고립된 데에서 거주민들은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모여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겼다. 그들은 친인척과 이웃을 방문해 함께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그간 나누지 못한 소식을 전하거나 사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양말에 숨긴 동전 찾기’처럼 단순한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주변의 자연

<sup>54</sup> 나마즈(Namāz)의 줄임말이다.

표 7 모스크 사용 계절과 거주지

지역	타흐트	전역	자우루드
계절	여름	겨울	여름
거주지	하와르	데	하와르
경제활동	목축	×	농사
생활방식	공동		가구별
이동회수	1~10번	1번	
지붕형식	가설지붕	흙지붕	
예배방식	개인	공동	개인

출처: 필자 작성.

을 예찬하는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부르거나, 과거의 사건을 되새기며 시를 읊기도 했다. 이 기간에는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다양한 공동체 행사도 개최했다. 하우라만 타흐트의 피르 샬리야르 결혼식이나 하우라만 전역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며 개최하는 노루즈(Nörüz) 행사들이 대표적이다. 샬리미(H. Salimi)가 이런 겨울을 가리켜 놀이, 시, 음악, 속담, 관용구, 의례를 비롯한 쿠르드인의 민족 문화가 탄생한 계절이라고 말한 것처럼(Salimi, 2011: 3), 겨울철 한가로운 공동생활에서 하우라만의 여러 문화도 탄생했고, 그중에 지역형 모스크도 있었다(표 7).

모스크의 공사과정을 알려주는 보고서나 구전이 확인된 바가 없어 건축가와 공사에 참여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모스크의 규모, 장식, 기능을 고려하면 이를 한 개인이나 가구가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한 가구가 주거용 돌집의 벽체를 세우더라도 인근 산에서 돌을 채취하고 옮겨온 돌을 적당한 크기로 쪼개기 위해서는 보통 수년이 걸린다.<sup>55</sup> 벽체를 세운 뒤에 벌목한 나무를 가져와 기둥, 보, 서까래, 판재로 사용할 만한 크기와 형태로 치목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지금도 돌집을 공사하기 위해 친인척들이 힘을 모으거나 일꾼을 사야만 하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정교하게 장식하는 모스크 공사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돌랍의 모함

<sup>55</sup> 여름기간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12-1월에는 적설량이 많이 집중되어 일 년 중에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을 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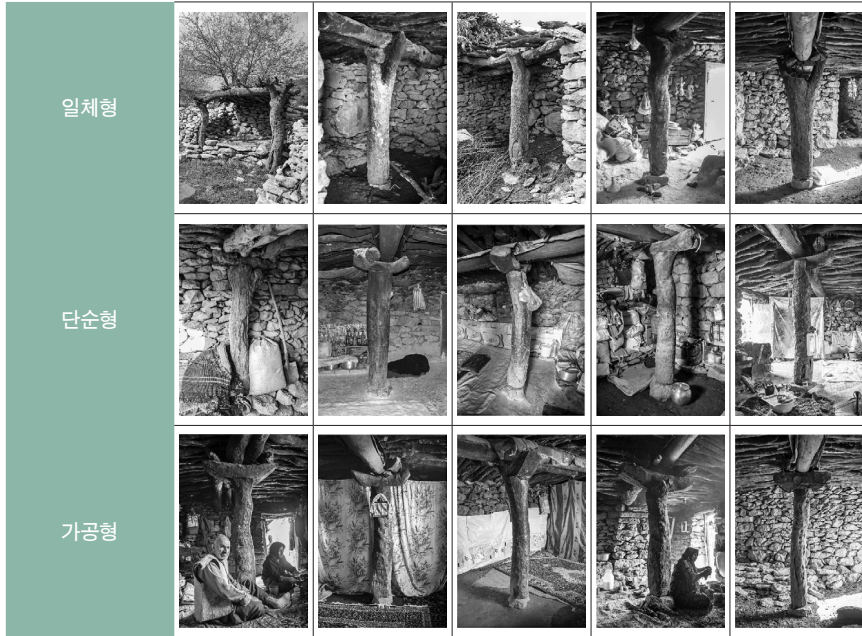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촬영.

그림 6 돌탑 모함마드 소플라 모스크의 석판

마드 소플라 모스크에 전하는 석판에서 “모함마드 소플라 모스크. 1754/5년(1168 AH)에 건립됨. 1948/9년(1368 AH)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개축됨(Masjed-e Moḥammadi-ye Soflā. Dar tarikh-e 1168 AH sākhte sbod. Dar tāriḳh-e 1368 AH bā kokak-e mardom-e rīstā nōsāzī sbod)”이라는 문구가 확인된다(그림 6). 비록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모스크 공사가 거주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하우라만 전역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울 뿐이며, 그 장소는 데뿐이었다.

모스크 건설에서 장식 주두의 계획과 제작은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비록 이곳의 주두가 투박해 보이긴 해도 하우라만에서는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다. 보통 주거용 돌집에 사용하는 주두는 자연목을 사용해 기둥과 분리하지 않은 일체형, 적당한 크기의 나무토막을 잘라서 사용한 단순형, 좌우를 뾰족하게 다듬은 가공형 정도로 나눌 수 있다(표 8). 그중에 어떤 것도 가장자리에 홈을 파거나 물방울 모양으로 깎아내지 않았고, 종교적 메시지, 수리연대, 특수 문양도 새기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 위에는 어떠한 채색도 하지 않았다. 마을마다 달랐던 모스크의 장식 주두는 분명 구조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안한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 어딘가에서 비슷한 주두를 만들어봤거나 이를 접한 외부인들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경험 없이도 주두 장식을 고안할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하우라만의 주두 장식을 문명교류나 자체적 고안의 상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누구였더라도 한가로운 공동생활에서 확보한 거주 공동체의 노동력이 없었다면 이를 구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표 8 고지반의 주거용 돌집 내부와 주두 유형



출처: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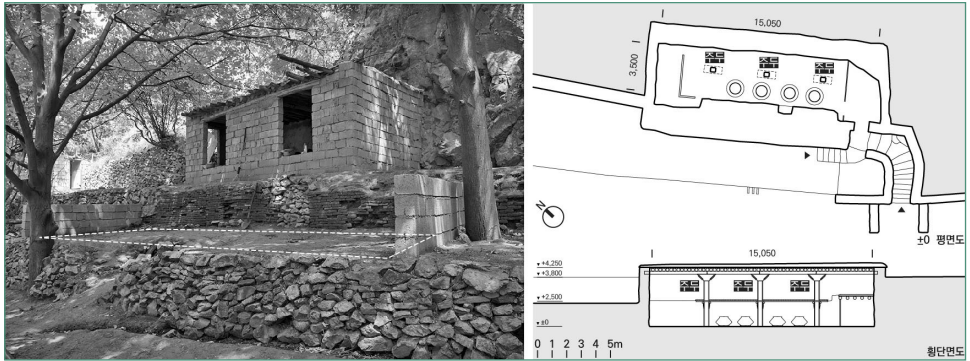
### 3. 『코란』의 원론적 지침과 대규모 공공시설의 번안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코란』의 계시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이슬람 건축이다. 하지만 예언자 모함마드가 전한 114개의 수라(Sūrah)와 6342개의 아야(Āyah)는 모스크의 형태와 구조를 언급하지 않는다. 아프룩(Afroogh)은 『코란』에서 반복하는 ‘일곱 겹의 하늘과 알라’나 ‘하늘과 땅의 빛’처럼 은유적 표현이 모스크의 돔, 아치, 무카르나스, 빛, 색상 등으로 구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스파한,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카이로 등지에 있는 거대 모스크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Afroogh, 2019: 2). 실제로 모스크에 영향을 미친 코란 구절은 “... 이전에 그대들이 향한 방향(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처럼 (메카로) 정한 것은 실제로 사도를 따르는 사람과 발길을 돌리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 (Surah 2, Āyah 143; 김용선 옮김, 2002: 66), “... 그대들이 예배하려고 할 때는 얼굴을

땀을 닦고, 팔꿈치까지 손을 닦고, 머리를 감고, 복숭아뼈까지 발을 닦아라. 그대들의 몸이 불결하다면 더욱 몸을 깨끗이 하라. …”(Surah 5, Āyah 6; 김용선 옮김, 2002: 142), 혹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누구라도 알라를 믿으면 … 혹은 믿지 않으면 …”처럼 단순하고 원론적이다. 이런 내용은 모스크에서 메카를 향하는 키블라 벽체, 우두(Üdü, Vozü)를 위한 세정실, 평등한 관계를 상징하는 횡방향의 예배공간 등에 영향을 미쳤다. 코란 어디에서도 특정 형태, 구조, 장식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스크의 세부사항은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기본적인 공간 구성의 원칙만 지킨다면 누구라도 지역의 건축 전통을 접목해 모스크를 계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우라만의 모스크는 동영지 데에서 사용한 기념비 건축의 전통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곳의 데는 보통 겨울철의 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계곡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세우더라도 가파른 경사지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16세기 후반 아르달란 가문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이끈 할로 한의 수도 팔란간 성채<sup>56</sup>의 모스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Mardūkh, 2016: 296). 그는 탕기바르강 동측에 석축을 쌓아 평평한 대지를 조성 뒤에야 모스크를 세울 수 있었는데(그림 7), 이렇게 만든 모스크의 폭이 4m를 넘지 못했다(최남섭, 2022: 225). 이런 조건에서 기념비 건축의 상부를 만드는 방식은 피르 샬리야르 부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화덕에 숨어있던 악마(Tanüre Div)’가 튀어나와 죽자 사바라 하툼의 병이 치유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녀와 피르 샬리야르가 혼인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Sheidā Mardūkhī, 2004: 90-93; Hawrāmī, 2007: 367). 이를 기념하는 3일 동안의 행사에서 이 건물 안팎은 고기 죽(Āsh)을 얻으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 때문에 피르 샬리야르의 부엌은 그의 묘소나 주택보다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물에서도 폭 3.5m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횡방향으로 15m 정도를 파내야 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좁고 긴 실내가 답

<sup>56</sup> 팔란간의 셰이흐 오마르 정원(Bāhg-e Sheikh ‘Omar)에서 남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계곡에 위치한다. 이곳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주변에 성벽을 두르는 언덕성채와 다르게, 깊은 계곡에 자리하고 어떤 인위적인 방어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계곡성채’다(최남섭, 2024: 205). 이를 두고 코르데스타니(‘Alī Akbar Vaqāye’negār Kordestāni)는 ‘자연적인 성채(Qal‘e-ye Ṭabī‘ai)’라고 불렀다(Kordestāni, 2001: 65).



출처: 필자 촬영 및 작성.

그림 7 팔란간 성채의 모스크 유적(좌)과 피르 샨리야르 부엌 도면(우)

답해 보이지 않도록 천장고를 4m 이상으로 높이고 그 안에 팔각형으로 다듬은 세 개의 기둥을 세워 흡지붕을 받쳤으며, 마지막으로 하우라만 타흐트의 자미 모스크와 같은 장식 주두를 기둥 위에 놓아 이 전설적인 건물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하우라만의 테에서는 높은 천장고, 치목 기둥, 장식 주두를 이용하는 기념비 건축의 전통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미 팔란간과 둘랍의 모스크들이 각각 주두 형상을 공유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하우라만 타흐트의 모스크와 피르 샨리야르 부엌, 파이젤란의 시신세척실과 벅의 저택에서 모스크와 다른 공공시설이 장식 주두를 공유한 경향도 살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공공시설에 장식 주두가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사데키라드와 동료 연구자들이 국가문화유산의 등재 후보군으로 조사한 아비한그의 마드라사(Madrassa), 둘랍의 수도원(Khānqāh), 달레마르즈(Dale Marz)의 대상숙소(Kāravānsarā), 여러 마을의 방앗간(Āsiāb) 9곳과 공용욕실(Hammām) 5곳에서는 어떠한 장식 주두도 확인되지 않는다(Sadeqirād et al., 2018: 1302-1332). 이와 같은 공공시설은 모스크의 예배실처럼 기둥이 필요할 정도로 넓은 실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우라만인들은 장식만을 위해서 주두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기둥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공간에만 장식 주두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들은 이슬람의 원론적인 건축 지침과 무슬림 공동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

는 대규모 내부공간을 만들던 동영지의 기념비 전통을 접목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 V. 결론

이 연구는 하우라만이라고 부르는 산간지대에서 공동목축과 가구별 농사를 지으며 계절별로 다른 거주지에서 살아가던 반유목 하우람인들이 동영지의 흙지붕 돌집 전통과 이슬람의 원론적인 건축 지침을 접목해 만들어낸 지역형 모스크의 기념비적 특성과 지역적 변용이 나타내는 의미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하우라만에 이슬람이 정착하는 과정과 지역형 모스크가 탄생한 배경, 계절별 돌집의 종류와 선택 방식, 흙지붕 돌집 구조로 만든 모스크의 상대적 규모 활용과 권위 표출, 이슬람의 건축 원칙과 동영지의 대규모 공공시설에 사용한 기념비 전통의 관계를 차례대로 확인했다.

하우라만 지역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던 고립된 산간이었다. 이곳의 계곡과 능선에는 다양한 출신의 부족들이 소규모 단위로 이주와 정착을 거듭하며 다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통합된 정치세력도 단일한 종교도 존재하기 어려웠다. 정통 칼리파 오마르의 차남 압둘라가 샤흐리주르와 파베를 정복한 시기에 하우라만의 서측 외곽지역은 이슬람을 처음 접했지만, 당시의 여파가 즉각적으로 이곳의 다른 지역에 미치지 않았다. 하우라만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정착한 시기는 잘랄 앳 딘이라는 이슬람 지도자의 도움으로 통치권을 획득한 바우남 가문이 등장한 이후였다. 이 가문의 첫 번째 인물 바흐만과 후대의 군주들은 이슬람을 통치 기조로 정하고 세력권을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바리야 베이그처럼 이교도들을 몰아내기도 했고, 아미르 사이드, 압바스쿨리 술탄, 레자 술탄처럼 혼란한 정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될 때마다 관할지에 모스크 건립을 추진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지역형 모스크는 반유목민의 건축 전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우람인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흙지붕과 매년 다시 설치하는 가설지붕의 돌집을 계절 기후, 거주지의 안정성, 경제활동 방식을 고려해 선

택적으로 사용했는데, 그중에 흠지붕 돌집 구조로 만든 모스크는 예배실, 세정실, 화장실, 시신세척실 등을 수용하며 규모를 확장했다. 이런 모스크는 이질적인 재료나 특수한 형태의 건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주거용 돌집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만으로 존재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스크 예배실의 벽체와 목조 부재를 적극적으로 장식했다. 보통 메카를 향하는 남측 벽체 중앙에는 창문보다 압도적으로 큰 방형 미흐랍을 설치해 �블라 벽체를 만들었고, 흠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기하학적 형태로 다듬거나 채색했다.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주두는 조각, 채색, 종교적 메시지, 수리정보, 문양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예배실의 다른 어떤 부재보다도 화려했다. 이와 같은 주두는 마을마다 공유하는 장식도 달라서 함께 거주하는 무슬림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상과도 같았다. 이처럼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는 외형적 특성에 비해 내부공간에 설치한 목조 기둥과 주두에 장식을 집중해 권위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지역형 모스크는 반유목민의 기념비 건축 전통을 이슬람적으로 변안한 결과였다. 여름 동안 거주민들은 공동목축과 가구별 농사에 종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거나 흩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공동체적 모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한곳에 모여 사는 한가로운 공동생활을 누리던 겨울에만 공동체의 노동력을 동원해 모스크를 만들고 공유했다. 그들이 만든 모스크는 『코란』에서 말하는 메카를 향한 예배, 예배 전의 세정 절차, 동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횡방향의 예배공간처럼 원론적인 건축 지침을 따랐고, 여기에 동영지의 가파른 경사지 조건에서 고안한 기념비 전통을 더해 만들어졌다. 이는 경사지를 파내어 생기는 좁고 긴 공간에 높은 천장고를 확보하고 그 안에 치목한 기둥을 설치한 뒤에 마을마다 달랐던 권위적인 장식의 주두를 설치하는 전통이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장식 주두는 구조적으로 기둥 설치가 필요할 정도로 넓은 실내공간을 가진 공공시설에만 사용한 부재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는 이슬람의 건축 규정과 무슬림 공동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공간을 만들 때 사용한 동영지의 기념비 건축 전통이 접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하우라만의 타흐트와 자우루드 외에 이란-이라크 국경에

면해 있어 접근할 수 없었던 르혼 지역의 계절이동과 돌집 사용의 전통을 다루지 못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된 실측조사보고서가 부재하고 연구자도 모든 대상을 정밀하게 실측할 수 없어 이곳 모스크의 평면, 입면, 단면, 기둥, 주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비례체계도 분석하지 못했다. 연구자는 모스크의 시간적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없었다. 모스크의 이름, 부재에 새겨진 숫자, 건축 양식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창건, 증축, 개축 연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직접 관련되는 문헌이나 구전이 확인되지 않아 이곳 모스크의 권위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주두의 형태, 조각, 문양, 색상의 의미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장식 주두는 아라비아반도, 이란, 튀르키예, 아프가니스칸,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처럼 평평한 흙지붕 돌집 문화권에서 폭넓게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조사한다면 주두 형식의 보편성과 지역성 사이에서 하우라만의 지역형 모스크에 사용된 장식 주두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투고일: 2024년 10월 14일 | 심사일: 2024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7일

## 참고문헌

- 이주연. 2020. “티무르朝 史書, 야즈디 撰 『勝戰記』(Zafar-nāma)의 譯註.”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남섭. 2019. “반유목 하우람인의 임시 거주지와 고정 건축.” *중앙아시아연구* 24(1): 153-181.
- \_\_\_\_\_. 2022.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24. “쿠르드 지배가문과 산간성채: 아르달란 가문의 전근대사 재편.” *아시아리뷰* 14(1): 197-235.
- 최남섭·전봉희. 2021. “이란 하우라만 지역의 돌 벽체 건축과 지붕형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3): 121-132.
- 山口昭彦. 2000. “オスマン検地帳に見る18世紀初頭イランの地方社会(1)イラン西部ア

- ルダラーン地方の農村と遊牧民社会.”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40(12): 211-267.
- ‘Abādī, H., Moṣṭafā, ‘A. and Khāledī, P. 2023. *Dar Āmadī bar Me’mārī-ye Būmī-ye Hawrāmān*. Kermanshah: Dāneshgāh-e Rāzī.
- Afroogh, Mohammad Reza. 2019. “Archite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ly Qur’an.” *Journal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2(3): 1-6.
- Dickson, B. 1910. “Journeys in Kurdistan”, *The Geographical Journal* 35(4), 357-378.
- Farhangī, ‘Adel. 2004. “Tārkh-i Pezhūhesh-i Maṅṭaqe-i Ūrāmānat (Research Project for Hawrāmān).” *Nāma-i Pezhūheshgāh-i Mūrāth-i Farhangī* 1(5): 79-92.
- Hamzeh’ee, R. F. and Baqernasab, M. 2017. *Indigenous Knowledge, Case Study: Traditional Gardening and Forestry in Haurāmān*. Tehran and Kermanshah: Razi University Press.
- Maḥmūdī, M. 2015. *Joghṛāpīyā-ye Farhangī-ye Hawrāmān*. Sanandaj: Entesharāt-e Kurdistān.
- Moḥīṭ-e Andīsh-e Pāйдār. 2010. *Gozāresh-e Emkān-e Sanjī-ye Maṅṭaqe-ye Nemūne-ye Gardeshgarī-ye Pālangān*. Sanandaj: Edāre-ye Kol-e Mīrath-e Farhangī, Ṣanāye’-ye Dastī va Gardeshgarī-ye Ostān-e Kordestān.
- Ramezānī, H. 2016. *Rūīkar-e Bāstān-e Mardomshenākhtī bar Khāstgāh-e Yekjāneshīnī va Taq’ir dar Shīve-ye Ma’īshatī dar Doūre-ye Nōsangī bā Tākīd bar Shomāl-e Gharb-e Kermānshāh*. Master’s Thesis. Bu-Ali Sina University, Hamadan.
- Saadallah, S. 1998. *Saladin’s English-Kurdish Dictionary*. Baghdad and Istanbul: Paris Kurdish Institute.
- Ṣādeqīrād, M., Javādīyā, Z., Qalāvand, M., ‘Alīpūr, A., Rostamzāde, S., Sharafī, S., Shahrīyārī, M. and Raḥmānī, L. 2018. *Gozāresh-e Pezhūheshhā-e Bāstānshīnāsī-e Hawrāmān: Barresī va Shenāsāī-ye Āthār-e Bāstānī (Marīvān, Sarūābād, Sanadaj, Kāmyārān)*. Tehran: Pāyegāh-e Manẓar-e Farhangī-ye Tārīkhī-ye Hawrāmān.
- Salīmī, H. 2011. *Zemestān dar Farhangī-ye Mardom-e Kordī: Ostānhā-ye Kordestān, Kermānshāh va Manāṭaq-e Kordneshīn-e Ādherbāījān-e Gharbī, Īlām, Hamedān va Lorestān*. Tehran: Sorūsh.
- Savagheb J., Salah M. and Mozaffari, P. 2017. “Tārīkh-e Salāṭīn-e Hawrāmān Tadāvom yā Tahāvole Tārīkhngārī-e Maḥalī dar Kordestān.” *Pezhūheshnāma-e Tārīkhkhā-e Maḥalī-e Īrān* 5(2): 137-156.
- Solṭānī, ‘Alī-moḥammad. 1992. *Īllāt va Tavāyef-e Kermānshāh: Ūrāmān*. Tehran:

Farhangī-ye Nashr-e Sohā.

- Ṭāherī, Mṣṭafā. 2006. *Aṭlas-e Mardomshenāsi-ye Rūstā-ye Ṭrāmān Takht*. Sanandaj: Edāre-ye Kol-e Mīrāth-e Farhangī, Ṣanāye'-ye Dastī va Gardeshgarī-ye Ostān-e Kordestān.
- Ṭālebniyā, P., Qādriyān. E. and Ṣādegīrād, M. 2024. "Mo'arefi-ye Masājed-e Tārikhī-ye Hawrāmān-e Zhāwarūd." *The Proceeding of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Urban Development, Environment and Horizons of Islamic Art in the Second Step Statement of the Revolution*. Tabriz Islamic Art University.
- Van Donzel, E., Lewis, B. and Pellat, Ch. 1997. *The Encyclopedia of Islam New Edition Vol. IV*, Leiden: E. J. Brill.
- Zarei, M. E. 2007. *Sīmā-ye Mīrāth Farhangī, Ṣanāi'-ye Dastī va Gardeshgarī-ye Kordestān*. Sanandaj: Sāzmān-e Mīrāth Farhangī, Ṣanāi'-ye Dastī va Gardeshgarī-ye Ostān-e Kordestān.
- \_\_\_\_\_. 2013a. "Barresi-ye Sāktār-e Me'māri-ye Dezhshahr yā Qal'e-ye Ḥassainābād." *Mīṭalle'āt-e Bāstānshenāsi* 5(1): 49-68.
- \_\_\_\_\_. 2013b. *Āthār-e Farhangī, Bāstānī va Tārikhī-ye Ostān-e Kordestān*. Tehran: Sobḥān-e Nūr.
- \_\_\_\_\_. 2014. *Khānehā-ye Qadīmī-ye Sanandaj*. Sanandaj: Dāneshgāh-e Kordestān.
- Zargar, A. 2004. *Dar Āmadī Bar Shenākht-e Memāri-ye Rūstāi-ye Īrān*. Tehran: Dāneshgāh-e Shahīd-e Beheshtī.

## 1차 자료

- 김용선 역주. 2002. 『코란』. 서울: 명문당.
- Ardalān, Khosrow ibn Moḥammad. 1977. *Lob-e Tavārikh "Tārikh-e Ardalān*. Tehran: Kānūn-e Khānevādegī.
- Bitlīsī, Sharaf al-Dīn. 1862(1998). *Sbaraf-nāme*. Veliasminof-Zernov, V. ed., St. Petersburg: Commissionnaires de l'Academie Imperiale des Sciences, Tehran: Asāṭir.
- Dāyere-ye Joqhrāfiāi-ye Setād-e Artesh. 1943. *Naqsbe-ye Pāwa(?)*. No. ?-?-?, Tehran, Chāpkhāne-ye Artesh.
- \_\_\_\_\_. ?(drawn in 1942/3). *Naqsbe-ye Palangān(?)*. No. ?-?-?, Tehran, Chāpkhāne-ye

- Artesh.
- \_\_\_\_\_. 1946/7. *Naqshbe-ye Jawānrūd(?)*. No. ?-?-?, Tehran, Châpkhâne-ye Artesh.
- \_\_\_\_\_. 1943/4. *Naqshbe-ye Rawānsar(?)*. No. ?-?-?, Tehran, Châpkhâne-ye Artesh.
- Devlet Arşivleri Başkanlığı. *TT1066*. Osmanlı Arsivi (BOA).
- Frame, G. 1968(1999). "The Inscription of Sargon II or Tangi Var (Tab. IX VIII)." *Orientalia* 68(1): 31-57.
- Hawrāmī, Moẓafar Bahman Soltān. 2007. *Tārikh-e Hawrāmān*. Sardashti, Nader Karimian ed., Tehran: Nashr Ehsan.
- Kordestānī, 'Alī Akbar Vaqāye'negār. 2001. *'Ashāyer va Īllāt va Ṭavāyef-e Kord*. Tavakolī, M. R. ed. Tehran: Tavakoli Publication.
- \_\_\_\_\_. 2005. *Hadīqe-ye Nāşrīye va Merāt al-Zafar dar Joḡhrāfiā va Tārikh-e Kordestān*. Tavakolī, M. R. ed. Tehran: Tavakoli Publication.
- Mardūkh, Moḡammad. 2016. *Tārikh-e Kord va Kordestān*. Sanandaj, Shūwān.
- Mastūre Ardalān. 2013. *Tārikh-e Kordhā-ye Ardalān*. Khallīlī, Siamand ed., Sanandaj: Kurdistan Publication.
- \_\_\_\_\_. 2019. *Tārikh-e Ardalān*. Ardalān, Maṣṣūr ed., Sanandaj: Rūzh.
- Sanandajī, Mīrzā Shokrollah. 1987. *Toḡfe-ye Nāşerī dar Tārikh va Joḡhrāfiyā-ye Kordestān*. Tehran: Amīr Kabīr.
- Sharīf Qāzī, Moḡammad. 2000. *Zobde-ye al-Tawārikh-e Sanandajī*. Tavakolī, M. R. ed. Tehran: Tavakoli.
- Sheidā Mardūkhī, Qāzī 'Abd Allah. 2004. *Tārikh-e Salāṭīn-e Hawrāmān*, Naẓīrī, A. ed., Sanandaj: Por Tū Biān.
- Yazdī, Sharaf al-Dīn 'Alī. 2008/9. *Zafar-nāme*. Şādiq, Sayyīd S'aid Mīr Moḡammad ed. Tehran: Markaz-e Asnād Majles.

## Abstract

## Vernacular Mosque and Semi-nomadic Architectural Tradition in the Hawraman Area of Iran

Namsub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numental characteristics of vernacular mosques in the Hawraman area of Iran, where semi-nomadic communities have adapted the mountainous architectural tradition to Islamic forms. It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the mosques, identif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permanent and temporary roof types used seasonally and regionally by the semi-nomadic people, and focuses on permanently roofed mosques as well, which express their inward authority through the decoration of the wooden columns and capitals in the prayer space that was expanded to accommodate the religious facilities. Additionally, this research explores the exclusive use of mosques in the winter quarters where collective labor was utilized, and highlights the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these mosques in merging Islamic principles with the local monumental traditions of large-scale public buildings.

**Keywords** | Hawraman Area of Iran, Vernacular Mosque, Semi-nomadic Stone House, Decoration of Wooden Column and Capital, Monumental Tradition of the Winter Quarter, Regional Adaptation of Islam